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RAAS식 리스크 평가제도의 도입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일반단체보험시장 동향 및 활성화논의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 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손해보험회사,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개발·판매
보험료 산출시 자사의 경험위험률 적용 확대 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 건강, 노후대비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추진
퇴직연금 설문조사
민영보험회사 가족공제에 참여 및 보장범위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 농업인 보장 확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 해외보험 동향

북미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기타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RAAS식 리스크 평가제도의 도입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1
일반단체보험시장 동향 및 활성화논의	23
보험산업 개관	30
보험산업 환경	35
1. 해외 경제	35
2. 국내 경제	37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39
보험지표 동향	41
1. 보험산업 총괄	41
2. 생명보험	43
3. 손해보험	54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65
1. 손해보험회사,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개발·판매	65
2. 보험료 산출시 자사의 경험위험률 적용 확대 유도	68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70
4.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 건강, 노후대비를 중심으로	72
5.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추진	75
6. 퇴직연금 설문조사	78
7. 민영보험회사 가족공제에 참여 및 보장범위 확대	83
8. 농작물재해보험 - 농업인 보장 확대	85
9.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88
해외보험 동향	90
1. 북미 동향	90
2. EU 동향	97
3. 일본 동향	105
4. 기타 동향	112
통계표	120

테 마 진 단

◆ RAAS식 리스크 평가제도의 도입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장이규 선임연구원, 김동겸 연구원

1. 리스크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금융시장 개방화, 금융상품의 복잡성 증대로 인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방적, 미래지향적 감독의 일환으로 리스크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됨.

-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은 시장 환경 및 규제수준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토대로 감독당국의 다양한 목적 하에서 폭넓은 기법이나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
 - 전통적인 감독방식은 과거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법규준수 및 실제 영업성과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보험회사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
 - 이러한 전통적 감독 방식에서는 각 회사의 취약한 리스크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 이에 따라, 모든 리스크 영역을 포괄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는 전통적 감독 방식과는 달리 목표리스크 영역을 중심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각 리스크 분야에 대한 평가 후 검사 범위를 결정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어 왔음.
-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개방화, 금융상품의 복잡성 증대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미래지향적 감독이 필요하게 됨.
 - 구조화된 과정(structured process)을 통해 각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개별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수준이 낮은 사업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도 사후평가 및 사후교정 위주의 경영실태평가제도

(CAMEL)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리스크 평가제도(Risk Assessment Application System)를 2007년 4월부터 시행함.

- 리스크 평가제도 도입을 계기로 매분기마다 보험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결과를 통해 리스크가 큰 회사 및 사업부문에 감독 자원을 집중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여기에서는 리스크 평가제도의 특징, 선진 금융 감독당국의 리스크 평가제도의 비교 등을 통해 향후 보험회사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국내 리스크 평가제도의 제반 특징 및 캐나다, 영국, 호주, 미국 등의 사례를 살펴 보고,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SolvencyⅡ가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보험회사들의 대응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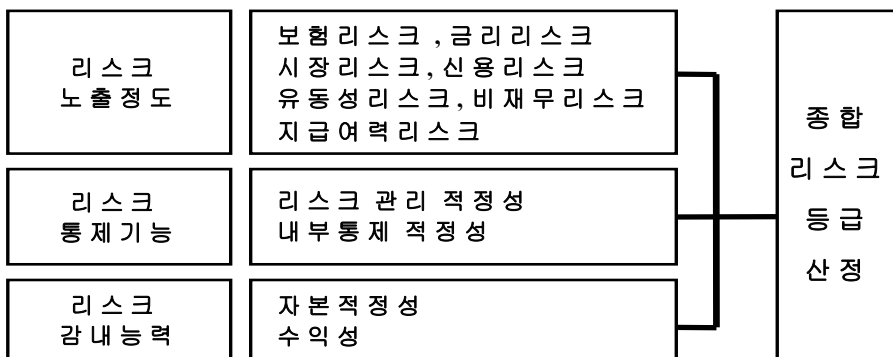
구분	현행제도	개선방안	Solvency Ⅱ의 체계 (3pillar)
자기자본규제	EU 식 지급여력제도	⇒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	■ 양적규제 : 최저자기자본 규제
건전성 평가	경영실태평가제도 (CAMEL)	⇒ 리스크 평가제도	■ 질적 규제 : 리스크 감독 규제
공시제도	경영공시	⇒ 리스크 공시	■ 시장규율 강화 : 자율 공시

2. 국내 리스크 평가제도의 특징

2007년 4월 도입 예정인 국내 리스크 평가제도(RAAS)는 현행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따른 리스크 노출 정도, 리스크 통제기능, 리스크 감내능력에 대한 평가로 구성됨.

- 현행 경영실태평가는 보험회사의 주된 리스크인 보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산과 부채의 구성 및 재무실적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리스크 평가제도는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 그 결과를 감독업무에 활용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감독업무의 수행을 가능토록 하는 일련의 과정임.

<그림 2> RAAS 평가요소 및 활용



- 리스크 평가제도(RAAS) 하에서는 리스크 노출정도(Risk Exposure), 리스크 통제기능(Risk Control), 리스크 감내 능력(Risk Tolerance) 등 3가지 평가요소를 통해 산출된 종합리스크 등급을 고려하여 감시수위를 결정하며, 이를 감독업무에 활용함.

- RAAS에서는 리스크 노출정도 항목에 보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자산 부문도 시장 및 신용리스크를 구분하여 평가함.
- 또한, 평가 시점의 재무성과 외에 과거 경험을 등을 이용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리스크 측정지표를 추가하여 미래의 손실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됨.
- 리스크 노출 정도는 개별 보험회사의 영업특성, 상품구조, 자산운용방식 등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생보 22개 손보 24개의 계량지표로 구성됨.
- 리스크 노출 정도에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비재무리스크 등 6개 부문으로 나눈 후 개별 평가 지표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게 됨.
- 리스크 노출정도의 평가지표는 BIS 표준방법, NAIC의 IRIS 지표, 현행 경영실태 평가(CAMEL)의 계량지표를 토대로 산출하고 있음.
- 각 평가지표는 그 특성에 따라 기초지표(개략적인 리스크 측정치), 정밀지표(리스크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리스크 지표), 보조지표 그룹(리스크 노출정도와 관련된 비율지표)으로 분류됨.
- 매분기별로 개별 평가지표에 부여된 등급에 따라 리스크 부문별 평가등급이 산정되며, 각 리스크별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금액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리스크 노출정도를 5등급 체계로 산정하게 됨.
-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비재무리스크의 관련금액은 각각 수입보험료(생보)·보유보험료(손보), 책임준비금, 시장리스크 노출자산, (총자산-단기매매증권), 총자산의 15%, 총자산의 15% 임.
- 리스크 통제기능은 보험회사가 노출된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2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8개 항목, 내부통제 4개 항목으로 구성됨.
- 리스크 통제기능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2개 부문에 대한 비계량평가로 이루어지며, 항목별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임점검사를 통해 이루어짐.
- 리스크 감내능력은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된 경우 이를 감내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2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자본 적정성 3개 항목, 수익성 5개 계량지표 항목으로 구성됨.

- 리스크 감내능력에서는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 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본적정성 부문과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능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익성 부문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짐.

3. 주요국의 리스크 평가제도

선진 주요국의 금융 감독기관은 리스크 중심의 사전 예방적 상시 감독을 바탕으로 개별 회사의 취약 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선진 주요 금융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변동에 대한 상시 감시, 사전 예방조치 등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에 맞는 사전 예방 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 감독기관은 리스크 중심 감독 시행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포괄하는 상시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 임점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리스크 평가시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비중있게 고려함으로써 리스크 평가 결과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의 성격을 가짐.
 -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회사의 리스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재 조치로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개선조치, 감독기관과 금융기관간의 경영개선 합의서 체결, 감독기관의 강제적 조치의 단계를 거치게 됨.
- 이와 같은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의 운영을 통해 각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개별 회사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의 조기 발견이 이루어짐.
 - 또한, 리스크가 취약한 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감독

자원의 배분이 가능하며, 리스크의 조기발견 및 관리, 통제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이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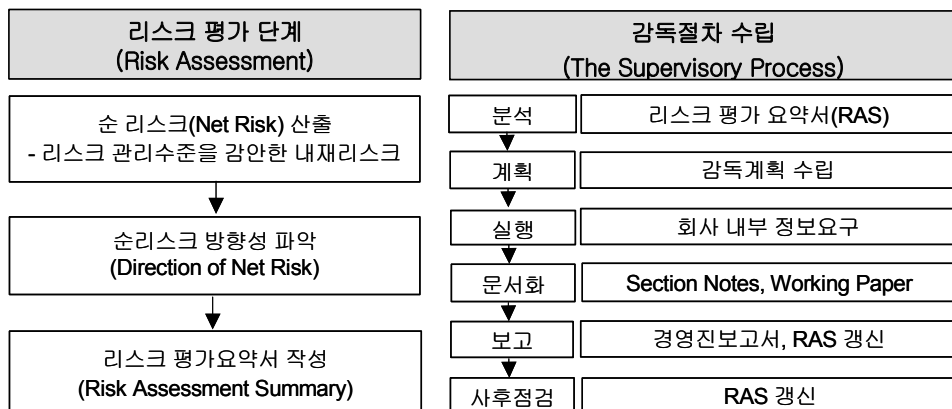
<표 1> 주요국의 리스크 평가제도 도입현황

구분	명 칭	적용시기	적용 대상
캐나다(OSFI)	Supervisory Framework	1999	보험 · 은행
호주(APRA)	PAIRS (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	2002	보험 · 은행
영국(FSA)	The Firm Risk Assessment Framework	2003	보험 · 은행 · 증권
미국(NAIC)	The Risk-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	2004	보험

가. 캐나다

- 캐나다의 통합 금융감독청에서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건전성 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Supervisory Framework를 실시 중에 있음.
- OSFI에서는 고유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과정의 분리 평가를 통해 각 금융기관의 보다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그림 3> Supervisory Framework 의 구조



- OSFI에서는 전략적 사업계획, 자본할당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각 개별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활동(Significant Activities)을 산정하고 있음.
 - 주요 업무활동 산정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개별 업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 리스크 가중 자산, 수익, 세전 수입, 리스크 가중 자본, 준비금 등이 있음.
- 고유리스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리스크로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 및 수익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 및 발생확률을 통해 산출되고 있음.
 - OSFI에서는 고유리스크를 크게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이자율리스크, 환리스크), 보험리스크(상품설계 및 가격리스크, 언더라이팅 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적 리스크, 전략 리스크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개별 회사의 주요업무활동에 따라 고유리스크를 산출한 후 low, moderate, high의 3단계로 평가를 하게 되며, 이는 리스크관리 수준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순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용됨.
-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는 회사의 규모를 고려한 재무분석, 규제준수, 내부감사, 리스크 관리, 경영진 및 이사회에 감독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감독당국에서는 개별회사의 리스크 관리수준에 대해 strong, acceptable, weak 등급을 산정하여, 고유리스크 등급과의 조합을 통해 순리스크 등급을 low, moderate, high로 산출하게 됨.
- 감독당국은 개별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고유리스크, 리스크 관리수준, 순리스크, 순리스크의 방향성 등에 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리스크 매트릭스를 토대로 리스크 평가 요약서(Risk Assessment Summary)를 작성하게 됨.
 - 리스크 평가 요약서 상에는 주력사업전략에 대한 정보, 리스크 관리 통제 능력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 과거 12개월 동안의 주요 사건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감독당국의 감독 과정에 이용됨.
- 리스크 평가단계를 거친 후, 감독당국의 감독절차수립 단계에서는 리스크 평가단계에서 작성된 리스크 평가 요약서를 토대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계획 및 조치가 실행됨.
 - 즉, 리스크 평가단계에서 작성된 리스크 평가 요약서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

관에 대한 감독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진 이후 임점검사 및 지속적인 감독 등의 조치가 취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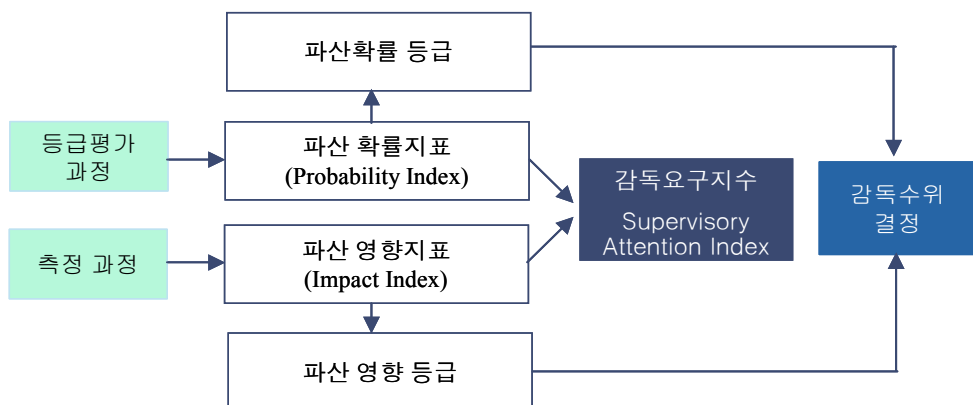
- 이를 통해 초기에 작성된 리스크 평가요약서가 다시 갱신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리스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됨.

나. 호주

- 호주의 금융감독당국인 APRA에서는 2002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파산 확률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을 개발함.
 - PAIRS 시스템은 통계 분석과 감독적인 판단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이 수탁자에게 재정적인 보장을 할 수 없는 확률과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영향 측면을 고려하여 감독수위를 결정하게 됨.
- 금융기관의 파산 리스크는 개별회사의 고유리스크,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능력, 감독당국의 개입이 없을 경우의 자금지원(capital support)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하게 됨.
 - 보험회사의 파산확률을 평가하는 첫 번째 단계는 회사의 사업 부문의 특성 및 규모로 인해 향후 재무성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고유리스크에 대한 평가임.
 - APRA의 고유리스크 평가항목으로는 부도 리스크,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적리스크, 전략리스크, 전염리스크 등이 있음.
 -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능력을 평가하는 부문에서는 개별회사의 경영구조(management structure), 시스템, 정책 및 고유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회사의 통제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리스크 관리 및 통제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사회, 임원진, 운영관리, 경영정보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자금지원능력은 예상치 못한 손실의 흡수 및 계약자에 대한 채무이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회사의 잉여금, 수익, 추가적인 자본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파산리스크는 Low, Low Medium, High Medium, High, Extreme 등 5개의 등급으로 구분이 됨.
- 파산리스크 등급과 회사의 자산 규모가 고려된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잠재적인 비용을 측정한 4개 등급(Low, Medium, High, Extreme)으로 구성된 영향지표를 통해 감독 수위를 결정하게 됨.
- APRA의 감독수위 및 감독자원의 배분은 각 회사의 파산확률 등급(Probability Rating)과 영향등급(Impact Rating)에 기반을 두게 되며, 감독조치는 4단계인 Normal, Oversight, Mandated Improvement, Restructure로 구분됨.

<그림 4> PAIRS 모형의 구조



자료 : <http://www.apra.gov.au/>

다. 영국

- 영국의 통합 금융당국인 FSA에서는 리스크에 기반을 둔 규제를 운영하기 위해 2003년 2월 ARROW 시스템을 발표하였음.
- ARROW 리스크모형에서는 특정사건의 발생 가능성인 개연성(probability)과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잠재적 손해액인 영향력(impact)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를 리스크로 인식함.

- ARROW 모형은 FSA의 설립 목적에 따른 감독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주요 리스크의 확인, 리스크의 중요도 측정, 리스크의 경감, 리스크관리 과정에 대한 감시 및 보고를 실행하고 있음.

<그림 5> ARROW RISK 평가모형 개요



자료 : The FSA's risk-assessment framework, 2006

- ARROW 구조 내에서의 등급 점수는 영향력(impact)과 개연성(probability)이 각각 low, medium low, medium high, high로 대응되는 4단계 등급으로 구성됨.
 -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FSA의 설립목적에 부정적으로 미치게 될 잠재적인 손실을 평가하게 됨.
 - 이를 위해 특정 사건에 대한 범위 및 심도에 대한 양적인 정보 및 소비자들의 변동성, 향후 예측되는 손실의 특성 등 질적인 요소도 고려하게 됨.
 - 또한, 이들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 리스크 평가 검사를 "Full Arrow", "Arrow Light" 및 "The Small Firms Model"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수행함.
- 개연성은 특정사건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로 개연성에 대한 평가시 특정 상품, 사업부문에 내재되어있는 총 리스크를 고려하게 됨.
 - 사업리스크(Business risk)와 통제리스크(control risk)로 구분하여 개연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10개의 리스크 그룹(risk group), 52개의 리스크 요소(risk element)로 구분됨.
 - 이들 개별 리스크 요소가 개별 금융기관에 미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개연성 등급이 산정됨.
- FSA의 감독의 초점은 개별회사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에 맞추어져 있으며, 또한 개

별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과정을 고안해 내도록 하는데 있음.

- 우선, 계획(Planning)단계에서는 리스크 수준에 대한 초기 추정치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가에 대한 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 후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임점검사가 이루어지는 조사(Discovery)단계를 거치게 됨.
- 평가(Evaluation)단계에서는 임점검사를 통해 검토된 사항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경영진과의 조율을 통해서 최종적인 평가보고서가 작성됨.

라. 미국

□ NAIC에서는 효과적인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Risk-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를 2004년부터 시행 중임.

-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는 크게 리스크 중심 검사(Risk-Focused Examination), 서면상의 리스크 중심 재무분석(Off-Site Risk-Focused Financial Analysis), 내부 및 외부변화(Internal/External Changes), 우선순위시스템(Priority System: CARMEL), 감독계획(Supervisory Plan) 등의 5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면상의 리스크 중심 재무분석은 잔여리스크(residual risk)를 사용하여 집중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의 선정, CARMEL 등급의 결정, 감독계획을 수정하는데 이용되며, 각 회사별 핵심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부여함.
 - 내부 및 외부변화에서는 임점검사를 통해 회사 등급평가의 변화, 소유구조, 기업 전략, 법적 규제상태 등을 파악하게 됨.
 - 우선순위 시스템인 CARMEL 제도는 FAST 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자금확보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부문을 확인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재보험, 준비금, 경영, 수익 및 유동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게 됨.
 - 또한, 우선순위 시스템의 결과는 보험회사 운영에 관한 취약부문의 선정, 향후 12~18개월 동안의 감독계획을 수정 보완하는데 이용됨.
- 리스크 중심 감독 구조에서의 각 부문의 결과를 토대로 회사의 일반적인 정보,

CARMEL 등급, 감독계획, 외부정보, 핵심 재무 데이터 등이 포함된 개별 보험 회사의 평가 보고서(Insurance Profile Summary)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개별회사에 대한 검사에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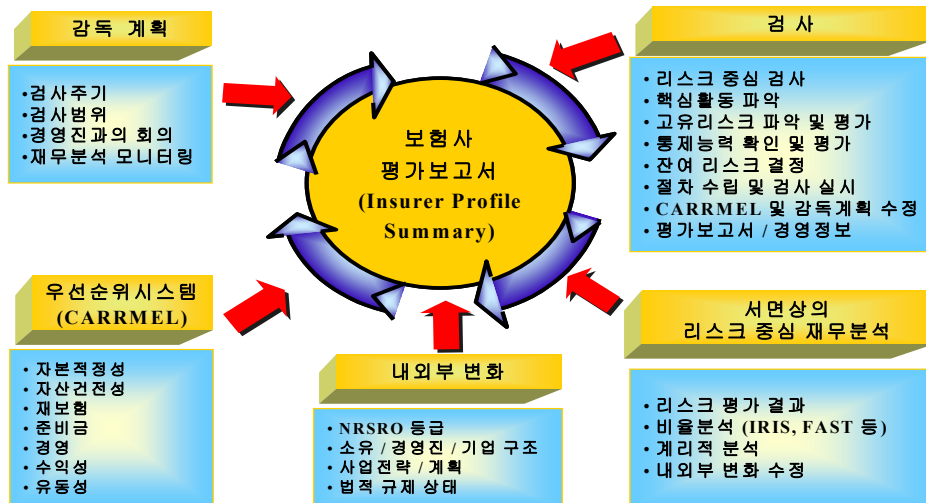
□ 리스크 중심 검사는 감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리스크가 취약한 부분의 선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7개의 과정으로 구성됨.

-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 파악 → 핵심사업의 고유리스크 확인 및 평가 → 리스크 관리과정 평가 → 잔여 리스크(residual risk) 결정 → 검사과정 수립 및 시행 → CARMEL 등급 수정 → 검사보고서 작성
- 1단계에서는 회사 개요, 소유구조,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평가, 감사기능의 적정성, 예상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을 파악함.
- 2단계에서는 각 사업부문에 대하여 내부 리스크 통제를 거치기 이전의 리스크인 고유리스크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3등급으로 평가(low, moderate, high)를 함¹⁾.
- 3단계인 리스크 관리과정 평가에서는 앞서 확인된 고유리스크를 리스크 경감전략(risk mitigation strategy)을 통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strong", "moderate", "weak" 3등급으로 구분됨.
- 4단계에서는 2단계와 3단계에서 평가한 고유리스크와 회사 내부통제능력을 바탕으로 잔여리스크(residual risk)를 계산하며, 여기에 감독관의 재량이 가미된 Overall Residual Risk를 통해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에 대한 최종적인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짐.
- 5단계에서는 앞서 작성된 리스크 평가서를 바탕으로 검사의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검사과정이 수립 및 시행됨.
- 6단계에서는 리스크 평가결과 및 검사 활동을 통해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CARMEL 등급의 수정이 이루어지며, 이 후 최종적인 검사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Examination Report"와 향후 보험회사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Management Letter"가 작성됨.

□ 주 감독당국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개별회사에 대한 감독계획을 작성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감독 계획에 대한 개요를 명시하게 됨.

1) Risk-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에서는 고유리스크(nherent risk)를 신용, 시장, 가격/인더라이팅, 준비금, 유동성, 법규, 전략, 평판 리스크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6> NAIC의 리스크 중심 감독구조



자료 : NAIC, Risk-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 2004

4. 3 Pillar 체계와 리스크평가제도(RAAS)의 역할

RAAS는 3 Pillar 감독체계에서 "Pillar 2 : 감독당국의 검사"로 진화할 것이며 "Pillar 1 : 지급여력규제"와 함께 리스크중심 감독을 완결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요구자본 규모와 적기시정조치와 연계될 것임.

- RAAS는 "Solvency II"의 3 Pillar 감독체계상 "Pillar 2"인 "감독당국의 검사 및 평가(SREP: Supervisory Review and Evaluation Process)²⁾"에 해당하며 보험감독당국 검사활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임.

2) 보험권에 적용중인 영국의 ARROW, 호주의 PAIRS, 캐나다의 New Supervisory Framework 및 미국의 Risk-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은 모두 "Pillar 2"에 해당하는 새로운 개념의 검사 프로세스임.

<그림 7> 3 Pillar 체제에서 리스크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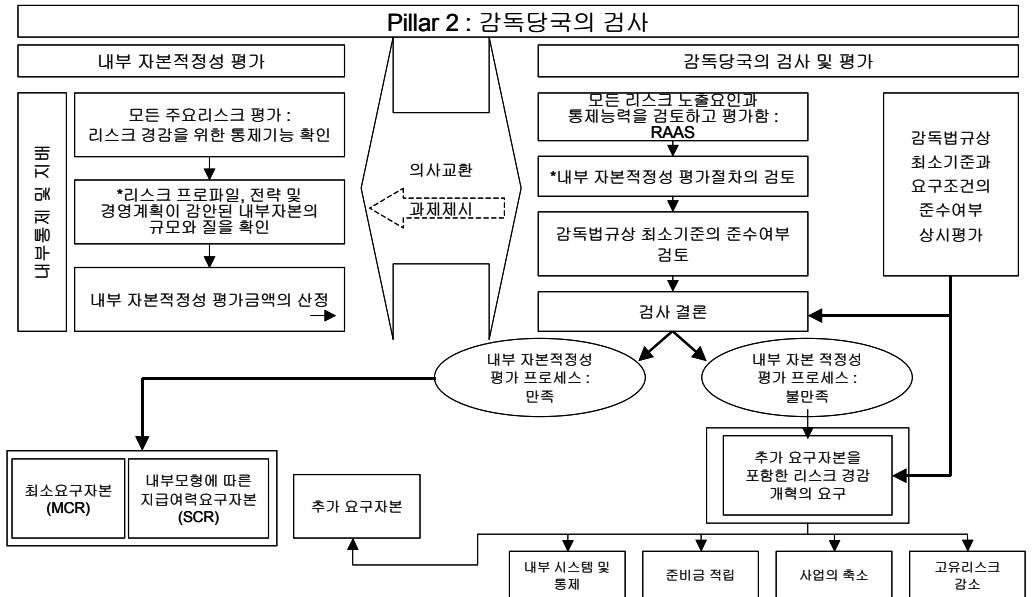
Pillar 1(양적규제) 지급여력관련 규제	Pillar 2(질적규제) 감독당국 검사	Pillar 3 시장규율
· 책임준비금 평가 · 요구자본의 이원화 : 최소요구자본(MCR), 지급여력요구자본(SCR) · 투자관련 규정	·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원칙 · 감독당국의 검사 및 평가(SREP)	· 공시 (감독당국, 시장) · 투명성 확보
요구자본을 리스크에 연동 ← 새로운 지급여력금액 산출방법의 도입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수준의 제고 ←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내부모형 사용 권장 및 RAAS		
금융서비스 영역간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 ← 감독 및 요구자본 수준의 조화		

자료 : Mercer Oliver Wyman, Solvency II: Strategic Impact on Insurer, May 2006

- 3 Pillar 감독체계 전반적인 관점에서 RAAS를 이해하면, "Pillar 1"에서 다룰 수 없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Pillar 1"과 함께 리스크중심 감독의 완결성을 확보함.
- 유럽의 "Solvency II³⁾"에 의하면, 지급여력요구자본(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을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따라서, 국내의 RAAS 역시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역할로 확대될 것임.
- "Solvency II"의 "Pillar 2"는 크게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프로세스"와 "감독당국의 검사 및 평가프로세스"로 구분될 수 있으며, 리스크 노출요인과 통제능력을 평가한 RAAS를 통하여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3) 은행권의 Basel II에 영향을 받아 EU에서 추진중인 신 보험감독체계로 현재 프레임워크는 완성되었으며 2010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 중임.

<그림 8> “Pillar 2”로서 리스크 평가제도의 지향점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 Pillar 2 and Supervisory Review : A New Approach to Regulation?, April 2006

- 유럽연합의 경우 RAAS를 통하여 지급여력요구자본(SCR)을 상회하는 추가자본의 적립(Capital Add-On)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감독당국에 부여하고 있음.
- 즉 현재 국내의 RAAS는 리스크 평가를 통한 감독수위 및 감독분야의 발굴이 가장 큰 목표이나,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궁극적으로는 자본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개연성이 큼.
- 따라서, RAAS는 경영실태평가의 보안 및 대체 제도를 넘어서 "Pillar 2"의 핵심적인 감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추가자본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적기시정조치(즉, 리스크경감 계획 등)와의 연계가 필연적임.

5. 리스크중심 감독의 영향⁴⁾

리스크 중심감독은 연금·재물보험 등 리스크가 큰 보험종목의 보험료 인상, 안정적인 자산운용의 선호도 증대 및 부채평가 변화를 주도하며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아웃소싱의 활용 등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함

□ 3 Pillar에서 리스크중심 감독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RAAS뿐만이 아니라 리스크에 연동되는 요구자본의 산출이 필요하므로 RAAS의 시행은 RBC제도 도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임.

- 궁극적으로는 리스크통제(Risk Control)능력의 강화를 유발하여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경제적 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의 출현 및 발전을 가져올 것임.
- 이 경우 지급여력요구자본(SCR)은 위험계수(Risk Factor)방식이 아닌 시나리오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언더라이팅 리스크 노출규모에 따른 요구자본 및 감독정책의 수립은 결국 보험료 및 보험상품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지급보험금의 변동성이 큰 재물보험 같은 거대위험에 노출된 손해보험은 더 많은 자본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종목의 분산된(Diversified) 포트폴리오는 전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감효과는 평균지급보험금 대비 독일과 이탈리아는 11%, 영국은 14%를 기록함⁵⁾.

- 연금처럼 장기에 걸친 보증(Guarantee)이 제공되는 상품의 경우 리스크 노출기간이 긴 만큼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추가 비용의 발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옵션의 가치는 현재의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리스크중심 감독체계에서는 추가 자본이 요구됨.

4)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RAAS의 시행뿐만이 아니라 조만간 지급여력기준 금액(요구자본)의 산출방식이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서 작성되었음

5) 자세한 내용은 "Swiss Re, Solvency II: An Integrated Risk Approach for European Insurers, No4/2006 Sigma"를 참조

□ 시장, 신용 등 투자리스크의 고려는 주식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보다는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운용의 선호도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장기에 걸친 이자율 보증 조항을 지닌 생명보험(양로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투자리스크 노출규모가 커서 자본비용 상승이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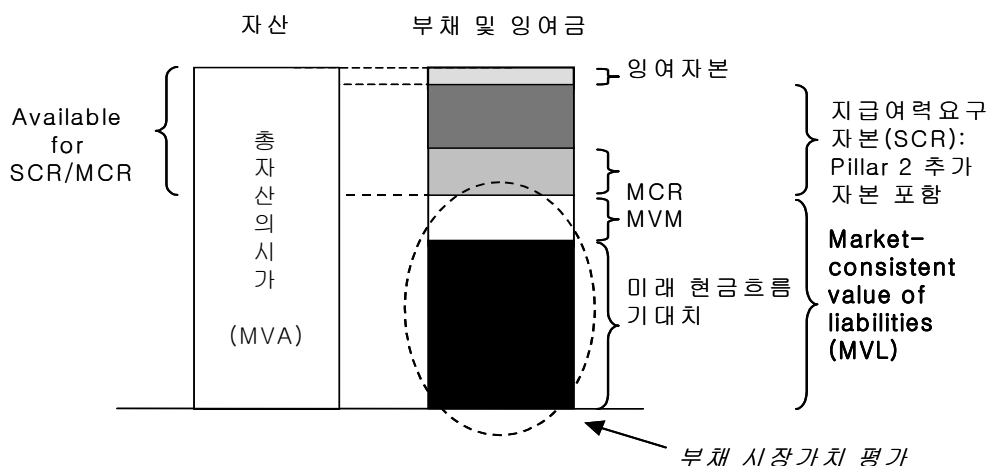
- 특히 장기간의 해징에는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장에 해징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보험회사 대차대조표 항목 중 가장 그 비중이 큰 책임준비금 평가방법 역시 리스크 중심 감독의 영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견되며,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보험프로젝트 "Phase II"의 작업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에 따르면 최선의 추정치에 시장가치마진(MVM)을 추가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중임.

○ 부채평가 및 리스크중심 감독이 완성된 경우의 대차대조표는 아래의 모습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그림 9> 미래 경제적 대차대조표의 특징



자료 : Raj Singh at ABI conference, Solutions to major issues for Solvency II; The industry's priorities for reform, 6 April 2006

-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통제능력의 계량화는 보험회사 모든 분야(예를 들면, 자산관리, 계약관리, 상품개발, 클레임 처리 등)의 비용을 투명하게 나타내므로 자사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문화 및 아웃소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러한 분화는 “상품 제공자” 혹은 “상품 판매자”로서 양분화 될 개연성이 존재함.
 - 즉, 리스크 관리에는 강점을 갖고 있으나 판매조직이 취약한 보험회사의 경우 상품설계 및 위험 전가에 업무를 집중하며 판매채널은 아웃소싱 필요
 - 강력한 판매채널을 확보한 보험회사는 판매 영역에의 특화를 더욱 강화시키며 상품설계와 위험전가전략은 다른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자 이용 필요
- 또한, 리스크 평가를 회사 단위별로 하는 경우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대형 그룹사의 경우 분산효과를 향유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를 브랜치화하는 경향도 예상할 수 있음.
 - 특화된 보험종목, 지역 그리고 단순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소형보험회사의 경우 분산효과는 적으나, 지급여력 계산, 내부 리스크관리 및 통제에 따른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음.
- 궁극적으로는 보험산업 전 영역에 걸쳐 risk return에 대한 고려가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임.
- 즉, 보험료 및 준비금 평가 시 보증 및 옵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전통적 계리방법론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지 못하는 보험회사는 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6. 보험산업의 대응방안

단기적으로는 RAAS의 도입에 만전을 기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상품설계의 변화 및 리스크 경감 전략을 통한 자본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전사적위험관리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리스크중심감독과 경제적가치의 증대를 조화롭게 일치시킴.

- 리스크평가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로 국내 보험검사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 모두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표 2>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대책

보험회사
-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원칙 수립 1. 리스크관리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활동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 2. 사업에 부수되는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정책 수립 3. 리스크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이 이사회 부여 4. 효율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경영정보 확보 긴요 5. 리스크 측정과 관리에 관한 문서화 - 임점(on-site visit)검사 이전의 준비사항 1. 감독당국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2. 감독당국의 출판물 혹은 여타 다른 출처로부터 집중 검사대상에 대한 단서를 확보 3. 취약부분이 있다면 개선에 대한 실행계획도 확보 4. 주요 문서에 대한 준비 철저 5. 리스크와 관련하여 토론할 준비를 철저히 함 - 임점(on-site visit)검사 이후의 준비사항 1. 검사시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 2.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협상할 준비 3. 리스크 경감을 위한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실행계획상 우선순위 설정
보험감독당국
- 리스크 평가시 보험회사와의 의견교환을 원할히 하며 검사 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ARROW II"의 시행을 통하여 “검사마감 회의” 및 “검사결과보고서 초안”의 제시를 통하여 사실관계의 부정확성을 수정함 - 교육과 효율적인 IT 확보를 통하여 검사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 리스크(규모 및 확률)에 따른 감독수준의 유연성 확보, 즉 임점검사주기의 차별화 및 소형사의 자원(Resource)수준에 맞는 리스크 통제능력 평가 등

주 : 영국의 ARROW 모형의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대응사례 참조

☐ 보험상품으로부터 자본집약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유계약의 경우 신계약 인수 중단(Run-off), 혹은 해당 포트폴리오의 판매 등의 검토가 요구됨.

o 또한 자본집약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품설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이익배분협정과 옵션 및 장기보증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 보험계약자도 손해의 일부를 감내하는 손실참여체계(Loss Participation Scheme)의 도입
 - 보험료 및 보험금의 조정을 허용하는 계약 조항의 도입, 예를 들면 보험료의 물가상승률 연동화 혹은 연금전환율의 주기적인 조정 등
 - 다양한 리스크를 인수하는 복합상품 개발을 통하여 자연적 헤지(Natural Hedge)를 유도
 - o 즉, 보증 및 옵션 제공의 축소와 보험계약자와 리스크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RAAS와 새로운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체계는 주요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는 대신 리스크 헤징 및 리스크 전가 등의 리스크 경감효과의 인정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할 전망이다므로 재보험, 헤징상품 및 증권화(Securitisation) 전략의 적극 추진이 필요함.
- o 재보험자는 더 나은 리스크 분산효과를 향유하므로 리스크 전가를 위한 출재비용이 리스크 보유에 따른 자본비용보다 적을 수가 있음.
 - 내부모형을 통한 지급여력요구자본(SCR) 산출이 인정될 경우 보다 적은 보험료로 지급보험금의 꼬리부분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비례재보험(Excess of Loss)의 활성화가 필요함.
 - 결국 재보험의 사용여부는 재보험회사업자의 요구자본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출재비용의 수준에 좌우됨.
 - o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ALM관리를 통한 복제(Replicating)포트폴리오의 구축이 최선의 방법이나 만기와 유동성을 만족할 수 있는 투자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을 통한 헤징이 고려될 필요성 존재
 - 투자리스크에 대한 자본비용 혹은 헤징비용은 생명보험계약의 초과수익률을 감소시키므로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 특히 투자리스크는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보험상품의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 o CAT 본드 같은 보험연계증권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전략의 차이는 보험회사의 경제적 가치에 중립적이므로, 즉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면 요구자본 증가에 따른 추가 자본비용이 동 효과를 상쇄시킬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언더라이팅 마진, 성장률 및 시장지배력의 확대가 주주가치 극대화에 주요 이슈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새로운 보험료 설정방법, 책임준비금 공정가치 및 내부모형을 통한 지급여력요구자본 금액의 산출 등 향후 보험회사의 공표 이익 및 잉여금은 리스크 평가방법 및 수준에 달려있으므로 리스크 평가를 위한 자사 경험실적의 집적 및 분석방법의 선진화가 요구됨.

○ 또한, 통계부족으로 인한 편이(Bias)의 제거 혹은 신빙성 있는 추세의 반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험산업 통계가 필요함.

○ 책임준비금 및 내부모형을 통한 요구자본 평가방법 - 즉, 리스크 계량화 - 의 적정성 검토가 RAAS를 통한 “Pillar 2”의 주요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므로 객관성과 일관성 있는 평가방법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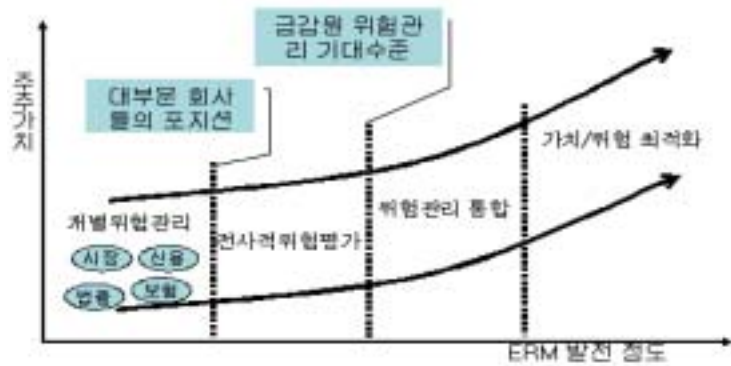
□ 결론적으로 리스크중심 감독체계에서 보험회사의 생존과 발전은 자본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 수준의 향상이 필수적임.

○ EWRM을 통하여 보험회사는 자신의 경제적 자본요구량을 산출하며, 리스크 통제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므로 EWRM을 활용 Pillar I 과 II 모두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럽형내재가치(EEV) 및 RAROC과 같은 성과지표의 활용을 병행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는 물론 리스크관리를 전사적 차원의 기업문화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음.

6) “유럽 보험 및 직역연금감독관 협의회(CEIOPS)”는 국제계리인회의 제안을 참고로 보험부채의 경우는 보험 잔여기간까지 손실분포의 75%, 지급여력요구자본의 경우 1년간 손실분포의 99.5%를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리스크 측정치(Risk Measure)는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VaR보다는 TVaR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그림 10> EWRM의 발전과정



자료 : 보험개발원, 「세계 보험회사들의 전사적 위험관리 추진현황과 시사점」, 주간보험이슈 제63호, 2004년 11월

◆ 일반단체보험시장 동향 및 활성화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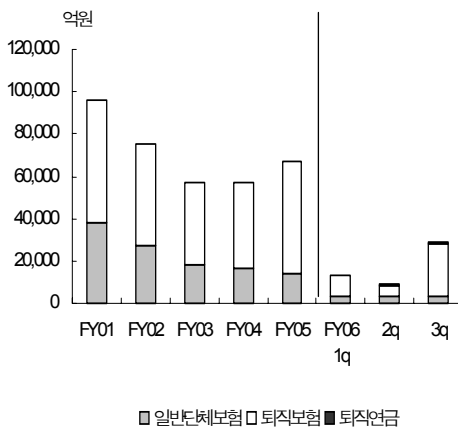
김진익 선임연구원

1. 서론

최근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단체보험시장의 특징을 일반단체보험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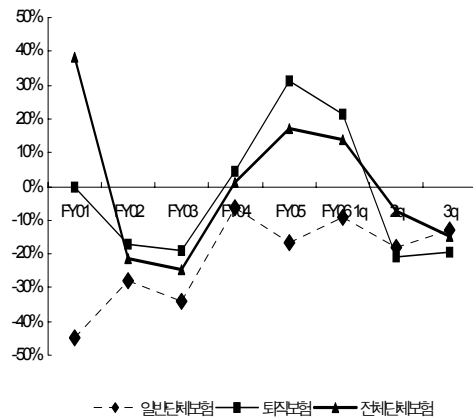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FY2003까지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여 왔던 전체 단체보험시장은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증가했으나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
- 단체보험시장은 일반계정인 일반단체보험과 특별계정에 해당하는 퇴직보험(1999년 4월 도입), 퇴직연금(2005년 12월 도입)의 3종목으로 구성됨.

<그림 1>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 각사 월말보고서

<그림 2> 단체보험 성장률 추이



자료 : 각사 월말보고서

- 종목별로 볼 때 퇴직보험 및 연금은 제도변화에 따라 증감이 나타나는 반면 일반
단체보험시장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FY2001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하 종퇴보험)은 특별계정인 퇴직보험으로 전환이 본
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후 경기악화로 해약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었음.
 -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우려로 퇴직보험이 선수요
를 일으키면서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됨.
 - 반면 일반단체보험의 경우 종퇴보험이 판매중단 된 후 FY2001 45.1%나 감소했으
며, FY2003에도 34.2%나 감소하는 등 FY2001부터 FY2005까지 평균 22.0% 감소
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
 - 이에 따라 단체보험시장에서 일반단체보험의 비중도 FY2001 39.8%였으나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 FY2005에는 21.0%까지 축소되었음.
- 이 보고서는 단체보험 중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일반단체보험시장의 주요지표 추
이와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함.
- 일반계정 중 일반단체보험시장의 비중은 1980년대 25.6%, 1990년대 22.6%대를 점
유하면서 전체 생명보험산업 성장을 주도하였음.
 - 그러나 FY98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해오면서 FY2001 이후 회사 고유
계정에서의 비중이 10% 이하로 축소되었고 FY2006 3/4분기 말에는 2.5% 수준으
로 급격히 하락함.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단체보험시장의 지표를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
의해 보고자 함.

<표 1>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3q
일반계정	415,840	440,913	457,553	473,242	477,807	366,146
- 개인보험	377,729	413,519	439,540	456,351	463,699	356,852
- 단체보험	38,111 (9.2%)	27,394 (6.2%)	18,013 (3.9%)	16,891 (3.6%)	14,108 (3.0%)	9,29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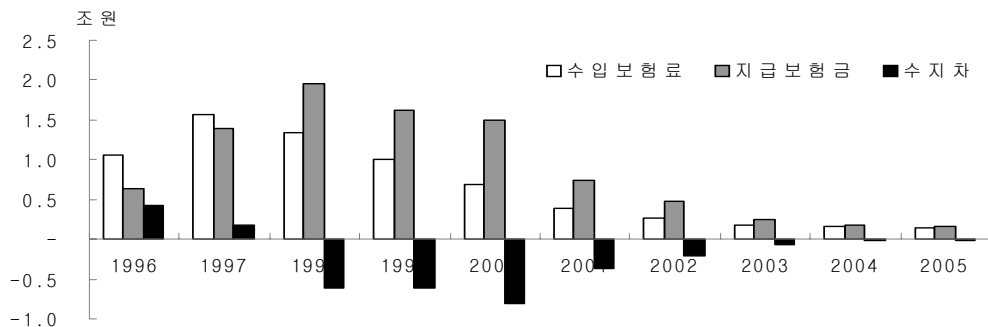
주 : ()는 일반계정에서의 비중임.

2. 일반단체보험시장 수지동향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퇴직소득관련 보험료유입이 중단됨에 따라 감소되었으나 이러한 영향이 소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FY1997 15조 6,910억원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FY1997 15조 6,910억원에 달하던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FY99 종퇴보험이 도입되면서 단체보험 특별계정으로 급속히 전환되었고, 2000년 10월 신규가입 및 추가가입이 중단되어 소진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3> 일반단체보험 수지추이



주 : 자료는 각사 월말보고서이며, 회계연도 기준임.

- 일반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 또한 FY1998 19조 5,073억원으로 최고조를 이루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험영업적자 폭도 감소하고 있음.
- 일반단체보험 지급보험금은 퇴직보험 전환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종퇴보험 해약으로 FY1998까지 증가하였음.
 - 종퇴보험이 1999년 4월 도입된 퇴직보험으로 전환되면서 해약환급금이 급격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증가함.
-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2003년 이후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영업수지적자 폭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일반단체보험에서 기존 종퇴보험 판매 중단에 따른 지급보험금 지급에 따른 영향

은 FY2003에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임.

□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 관련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소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FY2003 이후에도 일반단체보험료는 FY2003 34.2%, FY2004 6.2% 감소했으며 FY2005에는 16.5%나 감소함.

○ 지급보험금은 FY2003 47.0%, FY2004 28.7%, FY2005 15.4% 감소함에 따라 수지차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3. 최근 일반단체보험 상품 및 가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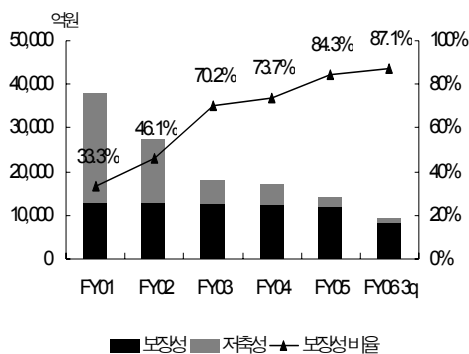
최근 일반단체보험료 감소는 저축성 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하며,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계속보험료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입기간도 길어지고 있음.

□ 종업원퇴직보험이 퇴직보험으로 전환이 마무리된 FY2003 이후 일반단체보험 저축성 보험료는 연 평균 35.6%씩 감소한 반면 보장성 보험료는 연평균 3.1% 감소하는 데 그침.

○ 최근 일반단체보험료의 감소는 저축성 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일반단체보험료가 감소하고 있는 개인보험의 경우와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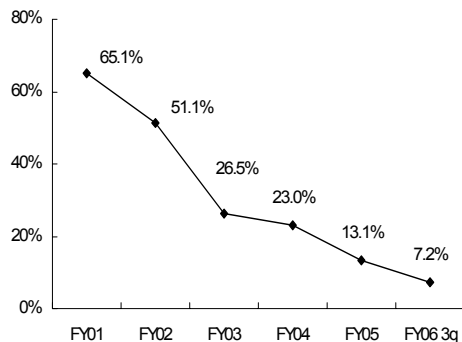
○ 또한 초회보험료 비중도 FY2001 65.1%였던 것이 이후 급격히 감소해 FY2005에는 13.1%, FY2006 3/4분기말 7.2%로 일반계정 개인보험의 8.1%에 근접해짐.

<그림 4> 일반단체보험 보장성비율 추이



자료 : 각사 월말보고서

<그림 5> 초회보험료 비중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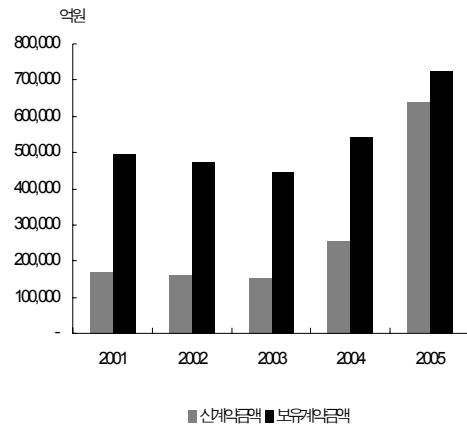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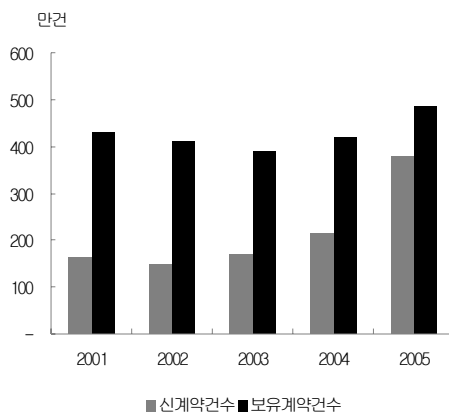
자료 : 각사 월말보고서

□ 일반단체보험의 가입건수는 FY2001 431만건에서 FY2003 390만건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FY2005에는 486만건에 이름.

○ 이는 일반단체보험의 저축성 보험료의 감소가 FY2003까지 지속되면서 신계약건수가 감소한 데 기인하며, FY2003 이후 신계약건수의 증가와 함께 역시 보유계약건수도 증가함.

○ 일반단체보험 가입금액은 가입건수와 같이 FY2003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증가율은 가입건수보다 높았음

<그림 6> 일반단체보험 가입건수 추이 <그림 7> 일반단체보험 가입금액 추이



주 :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 각사 월말보고서

□ FY00~01 신계약건당 가입금액이 보유계약건당 가입금액보다 하회하였으나 FY2004 부터는 증가하면서 보유계약건당 가입금액이 증가하기 시작함.

○ 신계약건당 가입금액은 FY2004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하고 FY2005 급격히 증가하면서 1,687만원에 이르러 보유계약건당 가입금액 1,489만원을 앞섬.

○ 일반계정 단체보험료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 이러한 건당 가입금액 증가는 일반단체보험 보장성 보험이 순수보장성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일반단체보험시장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보험료성장은 정체되어 있으나 보장성 보험종목을 중심으로 빠르게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줌.
- 일반단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세가 작고 지급보험금도 안정됨에 따라 수지차도 개선되고 있음.
- 신계약가입자수가 지속적 감소세를 벗어나 FY2005부터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유계약건수도 증가했음.
- 이는 일반단체보험시장이 개인보험시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 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며, 판매활성화노력도 변해야 함을 의미함.

4. 일반단체보험 활성화 논의

① 법제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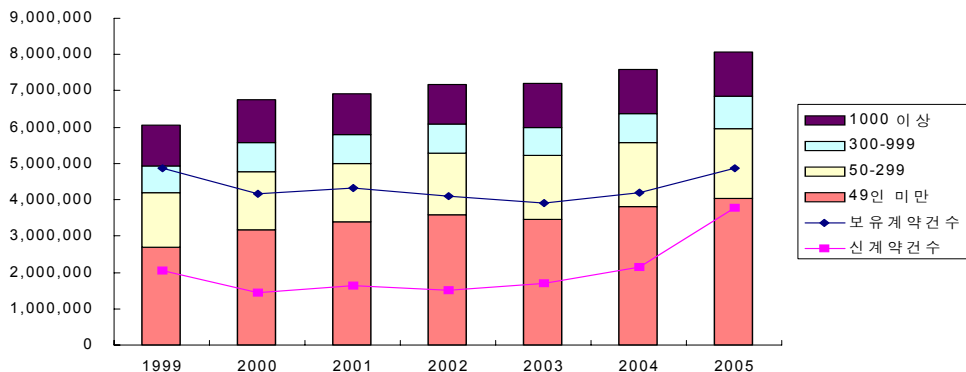
- 일반단체보험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의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단체보험, 특히 보장성 보험은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위험에 대해 안정적 근로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기능을 보조하므로 적절한 법제도 마련을 통해 기업과 종업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체보험은 기업과 종업원 입장에서 후생복지수단으로 유용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 기업의 인재유치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복지지원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늘려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단체보험가입에 따른 혜택을 확대해 현행 기업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이외에도 보험회사에도 낮은 효율로 단체보험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을 줘야 함.
- 미국의 경우 각주 보험법에서 단체보험의 대상을 구분하고 특히 소규모기업에 대해서 이관성보장과 우대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단체보험가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함.
-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듯이 일반단체보험도 가입의 장기화를 유도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직장의 이동에 따른 이관성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함.

- 또한 현재 지속되고 있는 퇴직연금보험의 판매와 함께 장기성 유도를 위한 특약 형태의 가입을 유도도 고려해 볼 만함.

② 보험회사 측면

- 일반단체보험시장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가입건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개인보험과 유사해지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 면밀한 조사와 이에 따른 판매촉진노력이 필요함.
- 최근 일반단체보험 신계약건수와 보유계약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계속보험료 구성이 증가해면서 개인보험을 닮아가 향후 저변확대의 조짐을 보임.
 - 일반단체보험의 보유계약당당 가입금액은 최근 증가했으나 FY2005 1,490만원으로 개인보험 약 2천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장의 여지가 있음.
- 또한 단체보험시장이 대기업중심시장에서 개인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경우 일반적으로 복지제도가 미약한 소규모 기업체의 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의 시장개척 여지가 있음.

<그림 8> 종사자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수 및 일반단체보험 계약건수추이



주 : 계약건수는 회계연도기준임.
 자료 : 통계청, 생명보험협회.

-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일반단체보험시장이 개인보험시장과 같은 수요구조로 바뀌고 있음을 인지하고 상품개발과 촉진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기업을 다변화해야 함.

보험산업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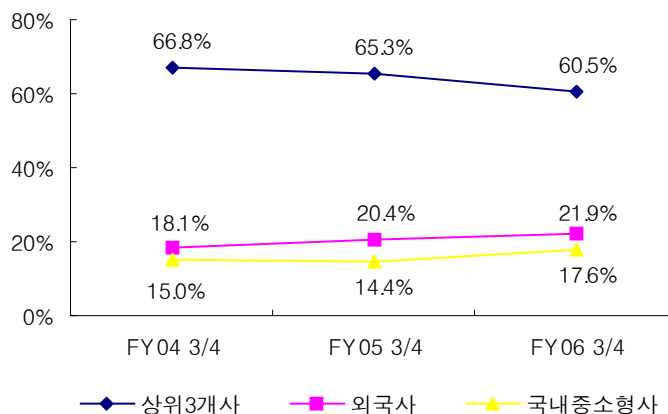
최근 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생명보험은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외국사 및 중소형사가 성장한 반면 대형사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온라인전업사의 비중이 증가함.

- 최근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변액보험 중심의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기존 대형사들의 비중은 감소함.

* 생명보험은 개인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보험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함.

-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외국사 및 국내중소형사의 개인보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였으나, 대형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보수적인 전략에 의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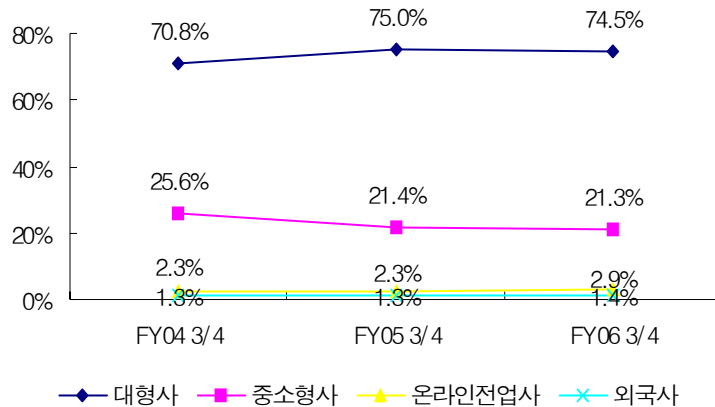
<그림 1> 생명보험(개인) 전체 M/S 변화



- 손해보험에서는 대형사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소형사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FY2006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 FY2006의 대형사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시장점유율이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에서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실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비중 감소로 인해 전체 시장점유율이 대형사와 같은 보합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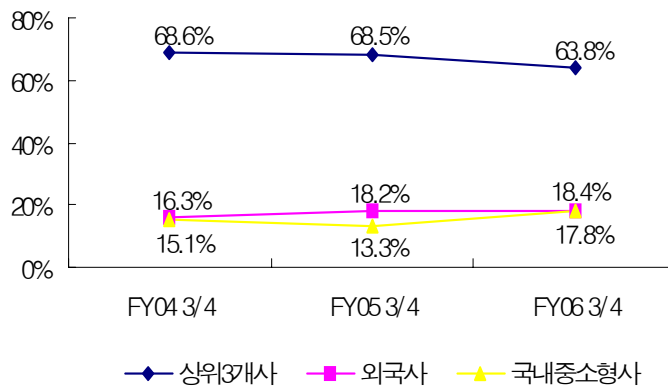
<그림 2> 손해보험 전체 M/S 변화



1. 생명보험

- 생명보험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변액보험 판매 증가에 따라 외국사와 국내중소형사의 비중은 상승세를 나타냄.
- 사망보험(일반계정)에서는 외국사 비중이 FY2004 3/4분기 16.3%에서 FY2006 3/4분기 18.4%를 기록해 2.1%p 상승하였으며, 동기간의 국내중소형사도 2.7%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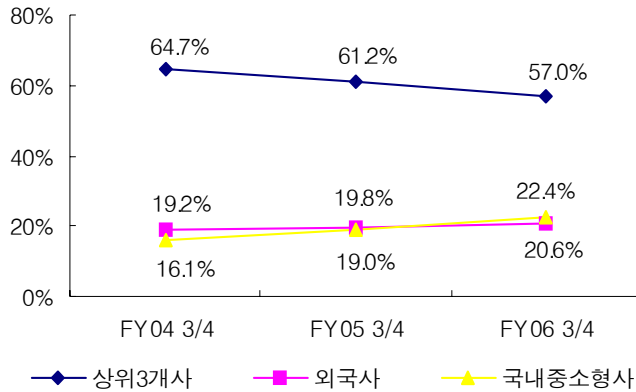
<그림 3> 회사별 사망보험 M/S 변화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말보고서』, 각 월호

-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일반계정)의 경우 FY2006 3/4분기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동기 대비 4.2%p 감소한 57.0%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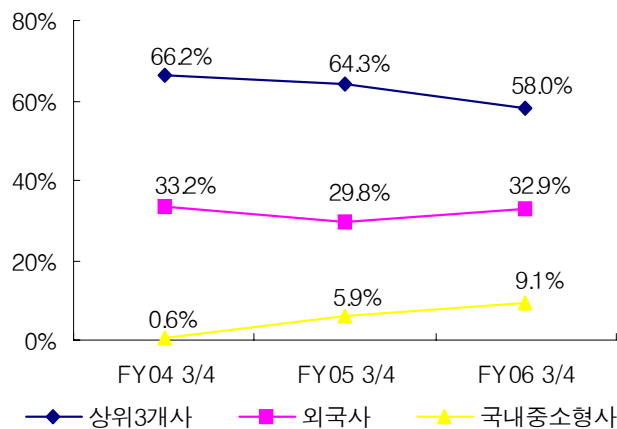
<그림 4> 회사별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 M/S 변화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말보고서』, 각 월호

- 변액보험(일반계정)의 중소형사 비중은 FY2006 3/4분기 9.1%를 기록해 FY2004 3/4분기 0.6%보다 8.5%p 성장한 반면, 상위 3개사의 비중은 8.2%p 감소한 58.0%로 나타남.

<그림 5> 회사별 변액보험 M/S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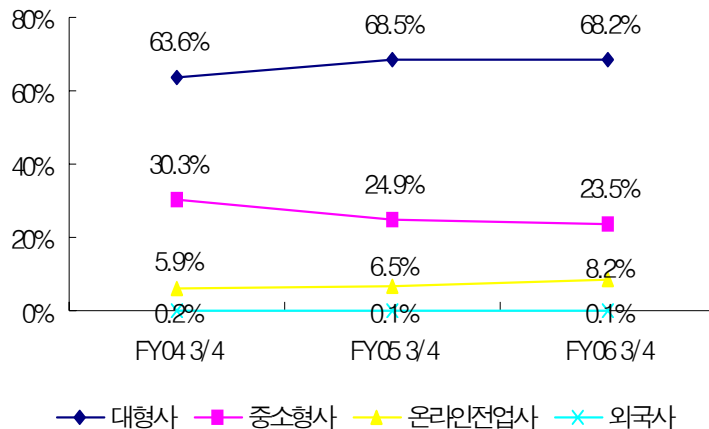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말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 FY2006에는 온라인 전업사가 자동차보험에서, 중소형사가 장기손해보험에서 각각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FY2006 3/4분기 온라인전업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FY2004 3/4분기 5.9%에서 2.3%p 성장한 8.2%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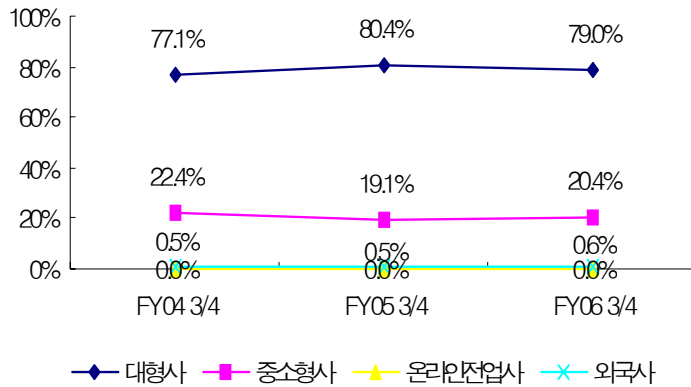
<그림 6> 회사별 자동차보험 M/S 변화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FY2006 3/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1.3%p 소폭 증가하였음.

<그림 7> 회사별 장기손해보험 M/S 변화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동향분석팀)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6년 4/4분기에 전반적으로 세계경기는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일본은 경기호조에 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나 엔화가치는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시현하였고 2007년 2월말 중국의 증시폭락이 주요국의 주가하락으로 이어짐.

- 2006년 4/4분기 미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과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함.
- 미국의 2006년 4/4분기 GDP성장률은 소비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건축투자의 마이너스 성장 폭이 확대되고 산업생산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2.2%에 그침.
- 중국은 긴축조치에 따라 고정자산투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소매판매와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세 확대에 힘입어 2006년 4/4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0.4%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일본의 2006년 4/4분기의 전분기 대비 GDP성장률은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2%를 기록하여 경기의 확대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
- 유로지역은 고용사정의 개선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산업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면서 GDP성장률이 2006년 4/4분기에 전기 대비 0.4%p 증가하였고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크게 높은 2.7%를 기록하면서 경기 호조세를 나타냄.

<표 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단위: %)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연간	
미 국	3.2	5.6	2.6	2.0	2.2	3.3	
중 국	10.2	10.3	11.3	10.4	10.4	10.7	
일 본	1.9	0.7	0.3	0.1	1.2	2.2	
유 로	1.4	0.8	1.0	0.5	0.9	2.7	

주 : 미국 전기비연율, 중국 동기비, 일본·유로 전기비
자료 :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200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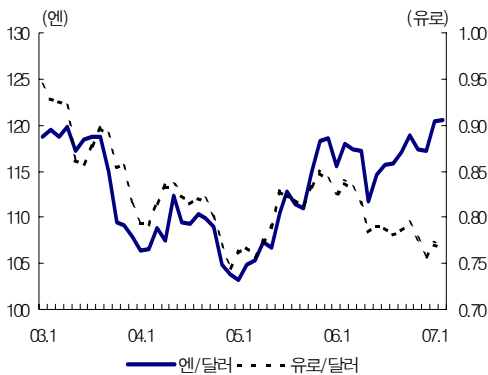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인소비지출	3.5	4.8	2.8	2.8	4.2	3.2	
주거건축투자	8.6	-0.3	-11.1	-18.7	-19.1	-4.2	
산업생산	3.2	5.0	6.5	4.0	-0.8	4.0	
소매판매	7.2	3.1	0.8	0.9	0.1	6.3	

주 : 소비지출·건축투자 전기비연율, 생산·판매 전기비.
자료 : 재경부, 『최근경제동향』 200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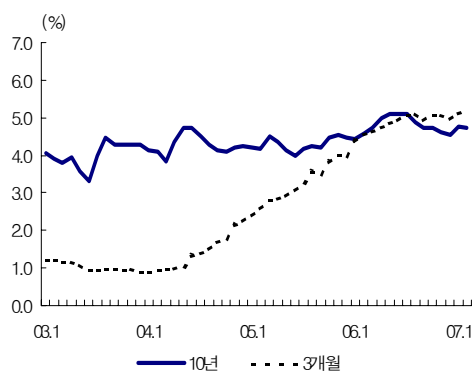
- 2007년 들어 미국은 경기둔화에 따라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하여 장단기금리 역전이 지속됐으며,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지속하고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냄.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7년 들어 경제지표 부진이 가시화되고 주요국 주가하락의 여파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1월말 4.82%에서 2월말에는 4.55%로 하락하여 장단기금리 역전이 지속됨.
- 일본은 경기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콜금리 목표수준을 2007년 2월 21일에 0.25%에서 0.5%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의 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인식으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치는 약세를 나타냄.
-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과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유로지역은 성장호조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에 대해 유로화는 강세국면을 지속함.
- 미국의 주식시장은 다우존스가 기업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2006년 12월 27일에 사상 최고치(12,510.6)를 경신하였으나 중국 주식시장이 위안화 절상 가능성 및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설 등으로 2007년 2월 27일에 8.8% 폭락한 데 따른 여파와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 2월말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함.

<그림 1> 국제환율 추이



주 : 기간 평균 환율임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2>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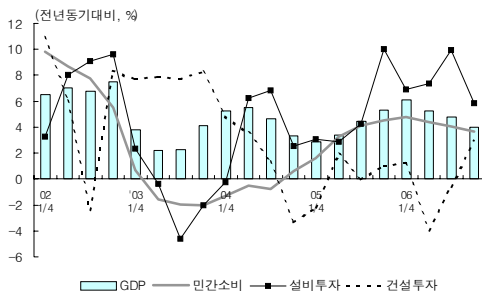
주 : 기간 평균 금리임
자료 : FRB St. Louis

2. 국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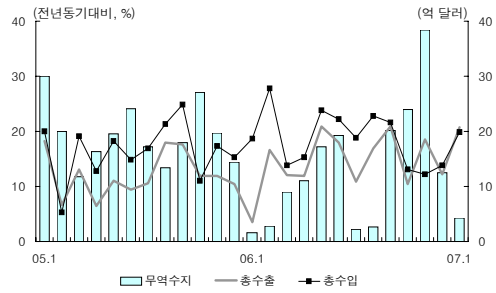
2006년 4/4분기에 GDP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둔화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0% 성장에 그쳤으며, 수출은 원/달러 하락 및 엔/달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였음.

- GDP는 2006년 4/4분기에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4.0% 성장하는 데 그쳤으며, 2006년 연간으로는 5.0% 성장함.
-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식료품, 전기가스 등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면서 전기 대비 0.8%(전년동기 대비로는 3.6%) 증가하는 데 그쳐 연초 이후 증가세 둔화 흐름을 지속하면서 GDP성장률을 하회함.
- 4/4분기에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기계류 투자가 감소로 반전되면서 전기 대비 0.1%(전년동기 대비 5.8%) 증가에 그침.
- 건설투자는 2/4 및 3/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4/4분기에 건물 및 토목건설이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2.6%(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함.
- 2006년 4/4분기 무역수지는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7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4/4분기 수출은 반도체, 선박, 석유제품 등의 호조에 따라 동기대비 13.8% 증가한 874억달러, 수입은 원자재 수입 증가세 지속으로 13.0% 증가한 799억달러 기록

<그림 3> 부문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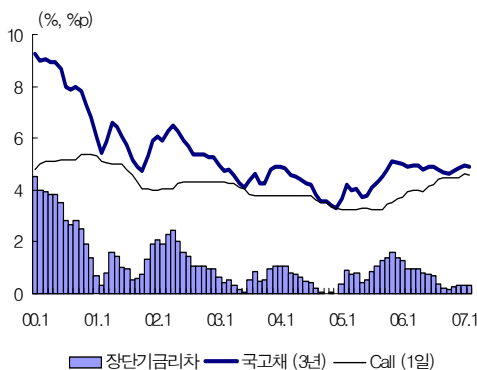


<그림 4> 대외 거래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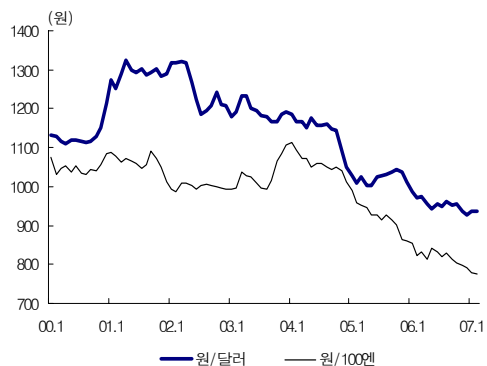
- 2006년 10월 이후 2007년 1월까지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고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를 2006년 8월 수준(4.50%)으로 유지함.
- 2006년 4/4분기 이후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및 총액한도대출의 축소, 외국계은행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6년 11월말 4.82%에서 2007년 1월말에는 4.96%까지 상승함.
- 콜금리는 한국은행이 2006년 8월에 연 4.50%로 상향조정한 이후 2007년 들어서도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결함에 따라 장단기금리 격차는 다소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락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100엔 환율은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교차하면서 빠른 하락기조를 유지함.
- 원/달러는 국내 기업의 수출호조 지속 등으로 인하여 2006년 12월초까지 하락, 2007년 1월까지는 美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따른 상승,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는 등 큰 흐름은 여전히 하락기조를 나타내고 있음.
- 원/100엔 환율은 2004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원/달러는 하락기조를 보인 반면 엔/달러는 상승기조를 보이는 원화와 엔화의 탈동조화 현상에 기인함.

<그림 5>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6>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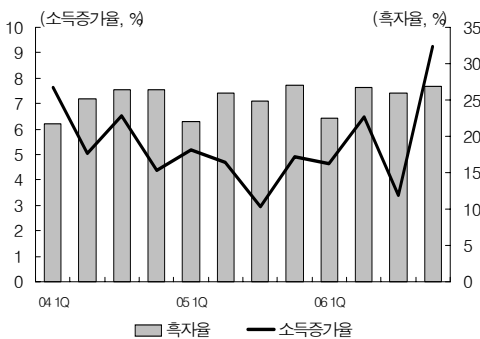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ECOS

3. 가계경제 및 시중 자금이동

소비자기대지수는 2007년 초 들어서도 여전히 100 이하를 나타내었고, 2006년 4/4분기 중 금융권의 순수신은 은행권과 보험권을 중심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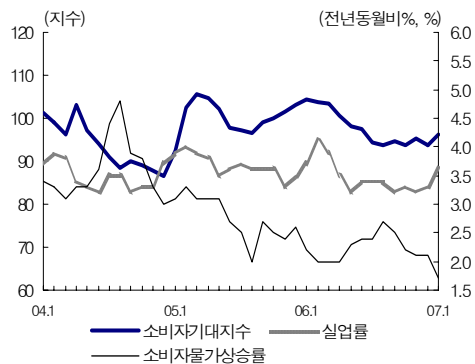
- 2007년 들어 소비자기대지수는 여전히 100 이하를 나타내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도시근로자가구의 흑자율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소비자기대지수는 2006년 4/4분기에 평균 94.3에서 2007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96.1과 98.1로 상승하여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100 이하를 나타냄.
- 2007년 1월에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 대비 0.1%p 하락하여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이 상승하였으나 석유류 가격 하락 및 아파트 매매가격의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1.7% 상승하는데 그쳐 안정세를 나타냄.
- 2006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59만5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228만6천원으로 8.3% 증가하면서 흑자율(26.9%)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그림 7> 도시가계 소득, 흑자율



주 : 흑자율 = 1 - 소비지출 / 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그림 8>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 통계청

- 2006년 4/4분기(FY2006 3/4분기)중 은행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이 늘어난 데 힘입어 증가하였으며, 투신권은 MMF 위주로 수신이 크게 증가함.
- 2006년 4/4분기에 은행의 순수신은 정기예금이 일부 은행의 예금금리 인하와 연말 지사채 등의 예산집행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시입출식예금이 크게 늘고 CD도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순발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약 18조원을 기록함.
- 4/4분기에 투신권의 자금흐름은 단기금리의 하향안정세로 인해 MMF 수신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함.
- 4/4분기 증권사의 순수신은 환매조건부채권에서 자금유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종합주가지수가 1400포인트 이상에서 13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고객예탁금이 크게 감소함.
- FY2006 3/4분기에 생명보험은 보험료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자금유입이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에서 질병보험과 통합형보험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보험권의 순수신은 전년동기 대비 약 23.9% 증가한 11조 5,113억원을 기록함.

<표 3>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5				CY2006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55,643	71,225	77,359	92,935	81,083	93,699	89,600	115,113
생명보험	42,277	53,602	60,022	75,781	66,460	74,238	69,914	94,257
손해보험	13,366	17,623	17,337	17,154	14,623	19,461	19,686	20,856
은 행	-20,297	176,673	96,532	49,098	-41,969	225,384	128,483	181,165
일반계정	-30,494	196,056	84,452	41,787	-85,002	183,429	82,785	165,339
신탁계정	10,197	-19,383	12,280	7,311	43,033	41,955	45,698	15,826
증 권	16,898	11,948	17,618	19,175	-8,291	18,650	48,065	13,445
투 신	52,889	46,962	-37,592	74,571	184,828	-5,011	25,649	97,260
총 금	19,416	2,048	-10,616	40,443	5,651	31,812	53,010	10,350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최영목 부연구위원)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6 3/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개인보험 성장률 하락과 단체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에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5.3% 성장에 그침.

- FY2006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크게 둔화된 반면 손해보험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 대비 5.3% 성장함.
- 생명보험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 왔던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단체보험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6%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양호한 성장과 장기보험의 지속적인 실적호조로 인해 전체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2.3%의 성장률을 기록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55,651	180,215
	13.0	11.7	12.8	20.0	14.4	14.8	10.0	2.6
손해보험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72,299	77,962
	9.8	8.8	11.6	12.8	10.8	13.1	16.5	12.3
합 계	198,169	203,600	245,061	225,126	871,957	226,395	227,950	258,177
	12.0	10.8	12.4	17.8	13.3	14.2	12.0	5.4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6 3/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이 전분기 대비 3.9%, 손해보험이 5.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1%의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냄.

- FY2006 3/4분기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의 성장률이 소폭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의 총자산 성장률은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4.1% 성장한 321조 3,861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변액보험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3.9% 증가한 265조 7,808억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 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와 투자수지 흑자 지속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5.1% 증가한 55조 6,053억원을 기록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종목	연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2,170,712	2,240,311	2,347,662	2,393,619	2,393,619	2,460,733	2,559,105	2,657,808
		2.6	3.2	4.8	2.0	13.1	2.8	4.0	3.9
손해보험		450,522	466,126	488,995	492,774	492,774	508,801	528,852	556,053
		3.6	3.5	4.9	0.7	13.4	3.3	3.9	5.1
합계		2,621,234	2,706,437	2,836,657	2,886,393	2,886,393	2,969,534	3,087,957	3,213,861
		2.8	3.3	4.8	1.8	13.2	2.9	4.0	4.1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6 3/4분기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18조 215억 원을 기록,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4 3/4분기 이후 2년만에 한자리수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성장률 감소와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마이너스 성장에 기인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특별계정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6.9% 상승에 그침.
- 단체보험의 경우 일반단체와 퇴직보험의 성장률이 각각 -13.1%, -19.5%를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15.0%의 성장률을 기록함.
- FY2006 3/4분기 변액보험자산증가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생명보험의 총자산 규모는 265조 7,808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3.9% 증가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55,651	180,215
	11.7	12.8	20.0	14.4	14.8	10.0	2.6
총 자 산	2,240,311	2,347,662	2,393,619	2,393,619	2,460,733	2,559,105	2,657,808
	3.2	4.8	2.0	13.1	2.8	4.0	3.9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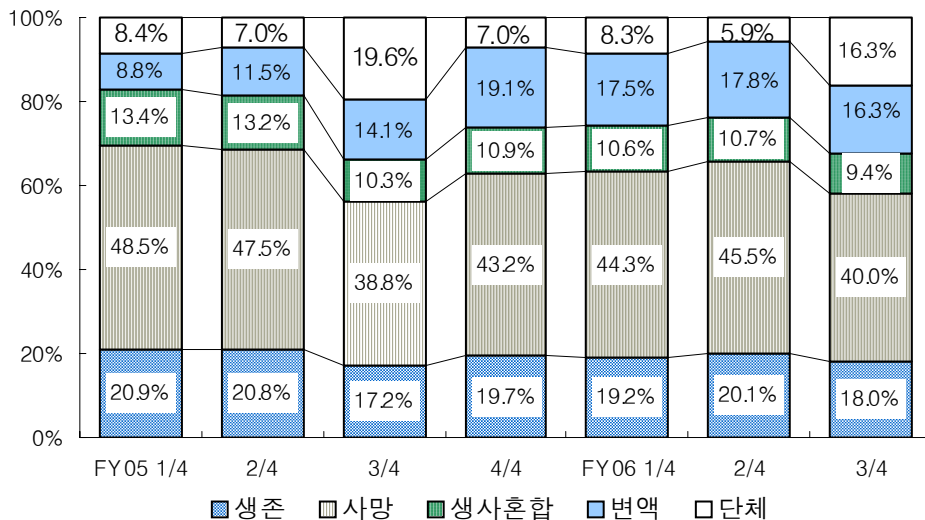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6 3/4분기 생명보험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변액보험의 비중 증가폭 둔화, 단체보험의 비중 감소,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비중 증가 등의 특징을 보임.
-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2.2%p 증가하였으나 FY2006 1/4분기 8.7%p, 2/4분기 6.3%p 증가에 비해 비중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단체보험의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3.3%p 감소하여 16.3%를 기록함.
-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각각 40.0%, 18.0%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2%p, 0.8%p증가하면서 지난 두 분기 동안의 비중 축소 흐름을 마감하고 비중 확대로 전환됨.
- 반면 생사혼합보험은 FY2006 3/4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비중이 0.9%p감소되어 3분기 연속 비중 축소 추세를 이어감.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6 3/4분기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생존, 사망보험에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반면,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대폭 둔화되고 생사혼합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 기인하여 6.9% 성장률을 기록함.
 -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조 2,398억원, 7조 2,12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7.5%, 5.8%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p, 0.5%p 상승하였음.
 - 생사혼합보험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3/4분기 성장률은 -6.1%를 기록하여 전분기 -11.3%에 비해 호전된 모습을 보임.
 - 변액보험의 경우 18.8% 성장한 2조 9,406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여 성장률 둔화추세를 이어감.
- 종목별, 상품별로는 무배당 상품 및 금리연동형 상품의 증가, 질병·상해보험의 꾸준한 증가세, 종신보험 증가세의 회복 등의 특징을 보임.
 - 배당유무에 따른 상품별 비중을 살펴보면 보장성 유배당 상품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전체 무배당 상품의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1.4%p 상승한 87.8%로 확대됨.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하여 일반계정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3.4%p 상승한 48.7%를 기록함.
 - 상품별로는 질병·상해보험이 계속되는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종신보험이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면서 점차 증가세를 회복하는 양상을 보임.
-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에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5.0% 성장률을 보임.
 - 일반단체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13.1% 성장을 기록하며 단체보험 전체의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함.
 -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지난 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3/4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9.5% 감소한 2조 4,905억원을 기록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28,600	29,441	30,125	31,722	119,887	30,188	31,314	32,398
	성장률	1.2	-5.6	-7.4	8.0	-1.2	5.6	6.4	7.5
	구성비	20.9	20.8	17.2	19.7	19.5	19.2	20.1	18.0
사망	보험료	66,402	67,289	68,182	69,342	271,215	69,685	70,840	72,127
	성장률	7.4	6.5	5.7	5.4	6.2	4.9	5.3	5.8
	구성비	48.5	47.5	38.8	43.2	44.1	44.3	45.5	40.0
생사 혼합	보험료	18,312	18,700	18,070	17,514	72,596	16,689	16,636	16,974
	성장률	-8.6	-7.7	-10.9	-8.2	-8.9	-8.9	-11.0	-6.1
	구성비	13.4	13.2	10.3	10.9	11.8	10.6	10.7	9.4
변액 보험	보험료	12,093	16,215	24,761	30,752	83,822	27,479	27,675	29,406
	성장률	334.3	392.4	295.8	168.4	252.4	127.2	70.7	18.8
	구성비	8.8	11.5	14.1	19.1	13.6	17.5	17.8	16.3
개인 계	보험료	125,408	131,646	141,137	149,330	547,521	144,041	146,465	150,906
	성장률	11.1	11.6	14.2	18.8	14.0	14.9	11.3	6.9
	구성비	91.6	93.0	80.4	93.0	89.1	91.7	94.1	83.7
단체	보험료	11,526	9,891	34,486	11,298	67,201	13,095	9,186	29,309
	성장률	39.5	12.8	7.2	38.2	17.1	13.6	-7.1	-15.0
	구성비	8.4	7.0	19.6	7.0	10.9	8.3	5.9	16.3
합계	보험료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55,651	180,215
	성장률	13.0	11.7	12.8	20.0	14.4	14.8	10.0	2.6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6 3/4분기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정체된 가운데, 외국사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함.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62.5%로 지난분기 62.4%와 거의 유사하여, 지속적인 하락추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
 - 국내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18.8%로 외국사들의 시장점유율 18.7%를 웃돌았으며, 이처럼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외국사들의 점유율을 상회한 것은 FY2004 3/4분기 이후 2년만임.
 - 허핀달지수는 0.1578을 나타내면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지만 FY2005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며 시장집중도가 개선되는 추이를 나타냄.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3개사	67.1	65.3	66.9	64.3	65.9	63.6	62.4	62.5
외 국 사	18.0	18.6	16.8	20.1	18.3	20.1	20.7	18.7
국내중소형사	15.0	16.1	16.2	15.6	15.8	16.3	16.9	18.8
허핀달지수	0.1833	0.1731	0.1778	0.1632	0.1739	0.1614	0.1546	0.1578

-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6년 12월말 알리안츠 등 10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6 3/4분기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 투자영업수지, 기타수지 모두 증가하였으나 준비금전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4.6% 감소한 1조 2,357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지는 영업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3.3%로 소폭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3.5%감소하면서 41.2% 상승하였음.
- 투자영업수지 또한 영업비용이 15.3% 감소한데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하였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타수지도 132.5% 증가함.
- 그러나 최근 IBNR 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준비금 전입액이 29.4%로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 및 기타 수지에서의 이익을 상쇄하였으며 법인세 또한 6.3%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245,944	371,024	500,499	125,079	252,867	383,363
	투자영업	60,610	91,883	125,203	31,688	62,531	95,061
	기타	6,575	6,576	10,080	3,054	6,685	10,746
	소계	313,129	469,484	635,782	159,821	322,083	489,175
총 비 용	보험영업	199,745	317,595	428,830	97,465	203,548	307,943
	투자영업	11,621	17,221	22,803	5,351	9,367	14,586
	기타비용	3,814	4,129	5,830	1,605	3,246	5,054
	소계	215,181	338,945	457,463	104,421	216,161	327,583
수 지 차	보험영업	46,199	53,429	71,669	27,614	49,319	75,420
	투자영업	48,989	74,662	102,400	26,337	53,164	80,481
	기타	2,761	2,448	4,250	1,449	3,439	5,691
	소계	97,948	130,539	178,319	55,400	105,922	161,592
준 비 금 전 입		83,547	111,892	151,083	50,636	95,226	144,802
법 인 세		3,014	4,170	6,264	1,330	2,895	4,433
당기순이익		11,388	14,477	20,972	3,433	7,800	12,357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6 3/4분기 전체 보험금지급률은 47.7%로 전년동기 대비 9.2%p 감소하였고, 사업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0.8%p 증가함.
- 개인보험의 경우 FY2005 3/4분기 비과세 상품의 만기도래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생사혼합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이 절반가량 감소하였고 사망보험의 지급률 또한 감소하면서 지급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함.
- 또한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보험금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험금지급률이 낮아짐.
-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모두 2/4분기에 이어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여 각각 17.7%, 8.1%를 나타냄.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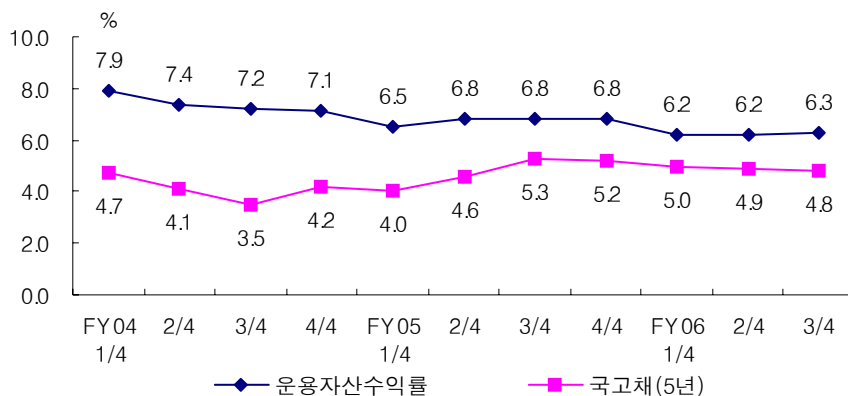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금지급률	58.6	57.6	56.9	58.6	57.9	52.7	55.1	47.7
생 존	62.5	63.0	70.0	70.4	66.6	60.8	66.7	62.5
사 망	34.2	36.2	36.4	39.4	36.6	37.2	40.9	38.4
생사혼합	133.5	138.1	199.2	133.2	151.0	108.3	109.9	110.4
변 액	4.9	5.2	6.1	8.0	6.5	12.1	14.7	20.9
개 인 계	52.3	52.8	59.1	50.5	59.9	45.6	49.3	48.2
사 업 비 율	19.0	18.6	16.3	18.0	17.9	17.8	18.8	17.1
신 계 약 률	5.5	12.4	19.1	28.0	28.0	5.5	11.5	17.7
해 약 률	3.2	6.1	8.8	11.9	11.9	3.1	5.8	8.1

주 : 1) 보험금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6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기보다 0.1%p 상승한 6.3%를 기록함.
- 항목별로는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각각 1%p 상승하였으며 부동산의 수익률은 전분기와 동일하였음.
- 단기매매증권의 비중은 FY2006 1/4분기에 2.9%에서 2.3%로 축소된 후 3/4분기까지 2.3%로 변동이 없고 매도가능증권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축소된 46.7%를 나타냈으며, 만기보유증권의 비중은 전분기와 동일한 9.9%를 나타냈음.
- 매도가능증권에서의 채권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0.1% 하락한 38.5%를 기록하였으나 수익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5.7%를 기록함.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 기준으 로 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ECOS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3/4		4/4		1/4		2/4		3/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2.2	3.8	2.0	4.0	2.4	3.9	2.1	4.5	2.4	4.3
유 가 증 권	59.0	6.0	59.4	6.1	59.2	5.4	60.0	5.4	59.7	5.5
○ 단기매매증권	2.9	10.9	2.9	9.5	2.3	5.7	2.3	5.8	2.3	6.0
- 주 식	0.1	110.4	0.1	93.9	0.1	12.0	0.1	17.4	0.1	19.0
- 채권 등	1.7	6.2	1.6	6.9	1.5	5.7	1.2	6.4	1.1	5.8
- 수익증권	1.0	7.3	1.2	5.4	0.7	4.9	1.0	3.9	1.0	4.7
○ 매도가능증권	47.9	5.7	46.2	6.0	46.3	5.2	47.0	5.3	46.7	5.4
- 주 식	5.1	2.7	5.1	4.0	4.8	3.7	5.1	2.5	4.9	2.2
- 채권 등	39.3	6.3	37.7	6.5	38.3	5.3	38.6	5.7	38.5	5.7
- 수익증권	3.4	1.9	3.4	3.4	3.2	6.8	3.3	5.2	3.2	6.6
○ 만기보유증권	7.4	6.2	9.5	5.3	9.8	5.8	9.9	5.8	9.9	5.9
- 채권 등	7.4	6.2	9.5	5.3	9.8	5.8	9.9	5.8	9.9	5.9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8	5.9	0.8	4.7	0.7	6.4	0.8	5.1	0.8	5.0
대 출 채 권	22.6	9.4	22.5	9.6	22.2	9.1	21.7	9.2	22.0	9.2
부 동 산	4.4	4.3	4.4	4.3	4.3	3.7	4.3	3.7	4.2	3.8
운 용 자 산 계	88.2	6.8	88.2	6.8	88.0	6.2	88.1	6.2	88.3	6.3
비 운 용 자 산	11.8	2.8	11.8	3.2	12.0	4.6	11.9	2.9	11.7	2.6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88.7)	6.3	100.0 (88.1)	6.4	100.0 (87.7)	6.0	100.0 (87.1)	5.8	100.0 (86.1)	5.9
특 별 계 정 자 산	12.8	6.6	11.9	7.1	12.3	4.7	14.8	6.6	16.2	6.5
총 자 산	100.0	6.3	100.0	6.5	100.0	5.8	100.0	5.9	100.0	6.0
총 자 산 규 모	2,347,662		2,393,619		2,460,733		2,559,105		2,657,813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6 3/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임직원, 설계사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한 반면, 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은 증가함.
- 임직원의 경우 퇴직보험 등 단체보험의 부진으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4.9%p 축소된 22.9%의 비중을 보임.
 - 설계사 비중 또한 전년동기 대비 1.4%p 하락한 42.8%로 나타났으며, 이는 설계사의 판매비중이 큰 변액보험의 부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방카슈랑스 비중은 임직원과 설계사의 상대적 부진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상승(6.0%p)하여 27.7%의 비중을 보임.
 - 중개사 비중의 경우 이전까지 거의 전무한 모습을 보였으나 당 분기에 일부외국사들을 중심으로 미미하나마 증가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임 직 원	23.5	21.5	27.8	13.8	21.4	21.9	20.0	22.9
설 계 사	37.7	39.4	44.2	52.1	44.5	43.5	43.5	42.8
대 리 점	6.6	6.0	6.3	7.9	6.8	6.9	6.0	6.0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1
방카슈랑스	32.2	33.2	21.7	26.2	27.3	27.7	30.5	27.7
기 타	0.0	0.0	0.0	0.0	0.0	0.0	0.0	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713	19,375	28,854	28,827	92,770	20,689	20,046	20,958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5 1/4분기부터 업무보고서 양식변경에 따라 T/M, C/M 채널이 다른 채널에 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6 3/4분기 말 임직원수와 설계사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0.7%와 2.2% 증가한 26,604명, 130,140명을 나타낸 반면 대리점수는 2.2% 감소한 10,110개를 기록함.
- 전분기 대비 임직원수의 증가는 국내중소형사들(2.4%증가)과 외국사들(1.9%증가)에서의 증가에 기인하며, 설계사수는 국내중소형사에서 8.1%인 2,348명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2%의 증가를 나타냄.
 - 전년동기 대비로 볼 때 임직원수와 설계사수는 각각 3.1%, 4.5% 증가하여 임직원수와 설계사수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나타냄.
 - 대리점의 경우에는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들에서 각각 4.9%, 3.2% 감소하여 전체적인 감소를 이끌었고, 2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7.7% 증가를 기록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5,688	25,807	26,033	26,051	26,432	26,604
설 계 사	129,647	124,494	123,850	125,542	127,346	130,140
대 리 점	7,238	9,391	10,290	10,812	10,341	10,110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김세중 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6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양호한 성장과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2.3% 증가한 7조 7,962억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년도 손해를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9.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부문과 저축성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21.2%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퇴직보험의 경우에는 계절적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18.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FY2006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5.1% 증가한 55조 6,053억원을 기록하였음.
 - 총자산의 증가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와 투자수지 흑자 지속에 기인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72,299	77,962
	8.8	11.6	12.8	10.8	13.1	16.5	12.3
총 자 산	466,126	488,995	492,774	492,774	508,801	528,852	556,053
	3.5	4.9	0.7	13.4	3.3	3.9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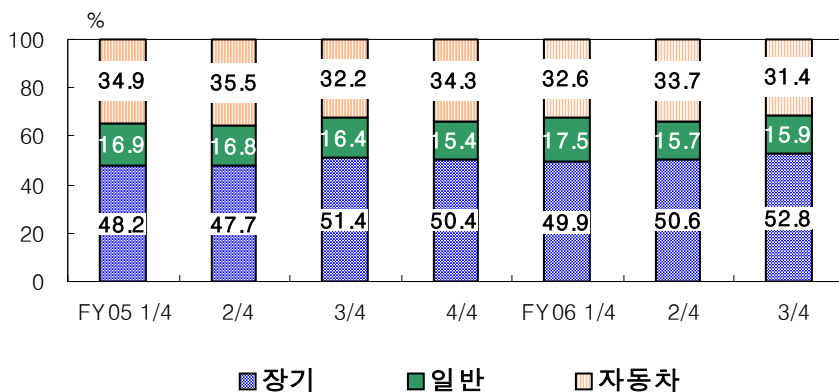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기준이며,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기준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6 3/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52.8%, 자동차보험 31.4%, 일반손해보험 15.9%를 나타내었음.

-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1.4%p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최근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구성비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0.8%p 감소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중,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6 3/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4,44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4% 성장하였음.

- 자동차보험은 전년도 손해를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를 회복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3.2%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은 건강 관련 보험 및 저축성보험 등 전 종목에서의 꾸준한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21.2% 성장한 3조 4,81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FY2006 3/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부문별 성장률에서는 통합형보험이 114.0%를 기록하였으며, 저축성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30.7%, 다음으로 상해 29.2%, 재물 2.8%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운전자보험과 질병보험에서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9%, -0.2%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의 전체 초회보험료는 45.2%의 높은 성장률은 기록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질병보험이 전년동기대비 114.0%, 통합형 65.5%, 상해와 운전자보험이 각각 51.0%, 42.0% 성장함.
- FY2006 3/4분기 보증보험은 2005년 4월 도입된 모기지신용보험의 판매 본격화와 이행보증보험 등의 대출관련 보증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3,073억원을 나타냄.
- FY2006 3/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한 1,304억원으로 소폭 성장하였음.
- 항공보험을 비롯한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9%, 2.6%, 1.9% 성장하면서 전체 해상보험은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운송보험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한 902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 2006년 4월부터 적용된 공장, 일반, 주택물건의 보험요율 인하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FY2006 3/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8.8% 성장한 6,813억원을 나타내면서 성장세가 소폭 상승하였음.
- 특종보험에 가장 비중이 큰 종합보험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한 2,693억원을 기록한 반면, 상해보험이 56.8% 성장한 1,888억원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 그 외 기술보험과 책임보험은 각각 -6.1%, -1.1%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음.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751	913	785	3,243	756	716	902
	성장률	13.2	10.7	14.6	10.4	-4.8	-4.7	-1.2
	구성비	1.2	1.3	1.2	1.3	1.1	1.0	1.2
해 상	보험료	1,412	1,280	1,186	5,277	2,101	1,604	1,304
	성장률	0.2	1.3	4.4	4.1	50.2	13.6	1.9
	구성비	2.3	1.8	1.8	2.1	3.0	2.2	1.7
자동차	보험료	22,062	22,342	22,100	87,890	22,598	24,344	24,444
	성장률	2.5	1.6	6.1	3.1	5.7	10.3	9.4
	구성비	35.5	32.2	34.3	34.2	32.6	33.7	31.4
보 증	보험료	2,391	2,791	2,630	10,067	2,972	2,665	3,073
	성장률	9.7	25.8	15.9	11.6	31.8	11.5	10.1
	구성비	3.9	4.0	4.1	3.9	4.3	3.7	3.9
특 종	보험료	5,744	6,263	5,152	22,904	6,143	6,159	6,813
	성장률	12.9	10.1	14.3	12.4	6.9	7.2	8.8
	구성비	9.3	9.0	8.0	8.9	8.9	8.5	8.7
해 외 원보험	보험료	143	164	173	609	156	205	278
	성장률	-33.0	-13.0	-7.1	-23.5	20.9	43.1	69.9
	구성비	0.2	0.2	0.3	0.2	0.2	0.3	0.4
장 기	보험료	27,435	28,736	29,932	112,562	31,564	33,352	34,814
	성장률	16.5	16.3	18.3	16.8	19.3	21.6	21.2
	구성비	44.2	41.4	46.4	43.8	45.6	46.1	44.7
개 인 연 금	보험료	1,715	1,788	1,789	6,976	1,836	1,884	2,119
	성장률	2.1	5.5	6.5	2.6	9.0	9.8	18.5
	구성비	2.8	2.6	2.8	2.7	2.7	2.6	2.7
퇴 직 보 험	보험료	410	5,162	752	7,707	1,133	1,370	4,216
	성장률	-42.7	41.7	29.8	37.1	-18.1	234.5	-18.3
	구성비	0.7	7.4	1.2	3.0	1.6	1.9	5.4
계	보험료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72,299	77,962
	성장률	8.8	11.6	12.8	10.8	13.1	16.5	12.3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관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6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와 일반사계는 전년동기 대비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반면, 전업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확대되었음.
-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0.5%p 감소한 70.9%를 나타냈으며, 온라인 단종보험회사는 전년동기 대비 0.5%p 증가한 2.8%를 기록함.
 - 전업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1%p씩 성장한 4.1%, 1.4%의 점유율을 기록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0.1532를 보이면서 대형사와 일반사계의 시장점유율의 감소 및 외국사 및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시장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연간	1/4	2/4	3/4
점유비	상위4개사	71.6	71.4	71.3	71.3	70.7	70.8	70.9
	일반사 계	94.9	94.7	94.8	94.8	94.3	94.6	94.5
	전 업 사	3.8	4.0	4.0	4.0	4.4	4.1	4.1
	외 국 사	1.3	1.3	1.2	1.2	1.3	1.4	1.4
허 핀 달 지 수		0.1581	0.1567	0.1557	0.1557	0.1519	0.1529	0.1532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6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성과에 있어서는 투자영업이익과 기타수지의 흑자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이 -6,498억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5.3% 감소한 7,637억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지는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에서의 손해를 급증으로 FY2005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음.
- 투자영업이익은 1조 5,207억원으로 흑자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함.
- 특히,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이익은 9,738억원 적자를 나타내면서 당기순이익도 2,563억원으로 축소됨.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의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112,337	171,114	231,078	62,032	127,173	194,983
	투자영업	12,166	19,477	26,358	6,497	12,926	19,984
	기타	3,209	7,984	9,270	4,352	4,198	10,778
	소계	127,712	198,574	266,706	72,880	144,297	225,745
총 비 용	보험영업	111,893	172,776	236,258	63,356	130,775	201,481
	투자영업	2,720	4,115	5,479	1,795	3,257	4,778
	기타비용	3,412	8,733	10,251	4,193	3,811	8,617
	소계	118,024	185,624	251,988	69,344	137,843	214,876
수 지 차	보험영업	444	-1,662	-5,180	-1,324	-3,602	-6,498
	투자영업	9,446	15,361	20,879	4,702	9,669	15,207
	기타	-202	-750	-982	159	386	2,161
	소계	9,687	12,950	14,717	3,536	6,453	10,869
법 인 세		1,755	2,727	2,844	1,055	1,864	3,233
당기순이익		7,932	10,223	11,873	2,532	4,589	7,637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6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2.5%p 증가한 102.3%를 기록하면서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손해율과 사업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p, 0.6%p가 증가함에 따라 FY2006 3/4분기 합산비율은 102.3%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은 78.8%로 자동차보험과 특종보험의 손해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차량운행 증가와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등에 따른 사고율 증가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종보험 손해율도 전년동기 대비 8.8%p 증가함.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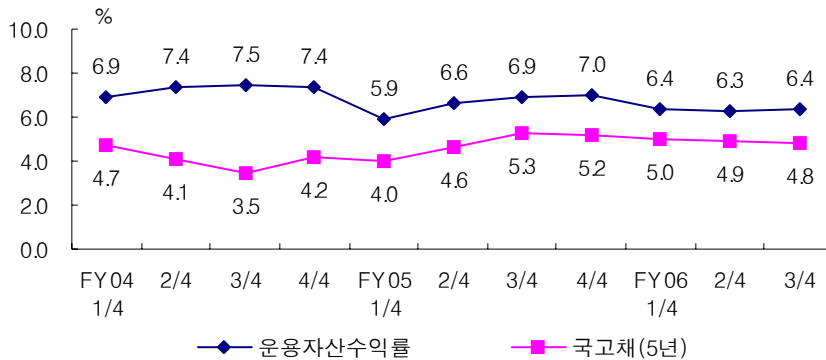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1/4	2/4	3/4
손해율	화재보험	42.8	41.2	40.9	48.6	40.7	40.2
	해상보험	50.3	49.8	52.0	51.3	50.3	46.4
	자동차보험	73.0	76.8	76.6	77.2	78.9	79.5
	보증보험	10.7	-1.0	2.9	16.2	10.5	21.5
	특종보험	47.0	48.0	51.6	48.5	55.8	56.8
	해외원보험	43.3	55.6	52.4	26.1	40.4	36.7
	장기보험	85.6	85.7	86.4	86.7	85.3	84.3
	개인연금	118.7	119.1	125.9	119.9	119.8	118.9
	전 체	75.9	77.0	77.9	78.6	78.7	78.8
사업비율		22.6	22.9	23.2	22.6	23.2	23.5
합산비율		98.5	99.8	101.1	101.2	101.9	102.3

주 :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6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한 6.4%를 기록하였으며, FY2005 4/4분기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회복됨.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
×(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단기매매증권 처분 및 평가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5.5% 감소함에 따라 유가증권 및 거래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수익률이 다소 감소한 반면, 매도가능 증권의 처분 이익 규모는 16.9%로 소폭 증가하였음.

- 단기매매증권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0.3%p 증가한 8.1%를 나타내었고, 매도가능 증권 수익률은 0.2%p 증가한 6.1%를 나타냄.

- 만기보유증권은 전분기 대비 0.1%p 증가한 6.2%를 기록, 투자주식은 2.6%p 증가한 14.6%의 수익률을 기록함.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1.7%p 증가한 36.4%를 나타내었고, 주식의 비중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0.8%p 축소된 6.7%를 나타내고 있음.

□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0.3%p 확대된 17.9%, 부동산은 0.8%p 확대된 6.7%를 나타냄.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4.0%를 차지하고 있어 전분기 대비 0.5%p 감소하였음.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3/4		4/4		1/4		2/4		3/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4.3	3.6	4.0	5.2	4.7	4.2	4.6	4.6	4.5	4.7
유 가 증 권	55.9	7.2	55.8	9.9	54.8	6.5	55.6	6.2	54.9	6.4
○ 단기매매증권	8.1	10.9	7.9	12.9	6.3	7.7	6.1	7.8	6.1	8.1
- 주 식	0.6	103.8	0.3	176.3	0.3	31.9	0.3	34.0	0.3	45.9
- 채 권 등	5.1	8.0	5.5	9.7	4.9	6.8	4.6	7.3	4.0	7.5
- 수익증권	2.4	4.5	2.0	6.1	1.0	5.9	1.2	4.6	1.8	3.9
○ 매도가능증권	43.7	6.4	43.7	9.1	44.5	6.3	45.3	5.9	45.0	6.1
- 주 식	7.5	7.8	7.2	13.8	6.8	7.1	7.0	5.3	6.7	7.0
- 채 권 등	34.7	5.9	35.1	9.3	35.9	6.1	36.4	6.2	36.4	6.3
- 수익증권	1.5	12.0	1.5	20.9	1.7	5.8	2.0	6.9	2.0	5.8
○ 만기보유증권	3.3	8.8	3.4	8.2	3.4	6.4	3.4	6.1	3.1	6.2
- 채 권 등	3.3	8.8	3.4	8.2	3.4	6.4	3.3	6.1	3.0	6.2
○ 투자주식 ¹⁾	0.7	19.9	0.8	27.5	0.7	12.0	0.8	12.0	0.8	14.6
대 출 채 권	17.6	8.1	17.9	8.0	17.6	7.8	17.3	8.0	17.9	7.8
부 동 산	7.5	3.5	7.4	3.5	7.3	3.3	7.0	3.3	6.7	5.1
운 용 자 산 계	85.2	6.9	85.1	7.0	84.4	6.4	84.5	6.3	84.0	6.4
비 운 용 자 산	14.8	-	14.9	-	15.6	-	15.5	-	16.0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96.2)	6.0 -	100 (96.3)	12.2 -	100.0 (96.4)	5.5 -	100.0 (96.5)	5.3 -	100.0 (96.1)	5.4 -
특 별 계 정 자 산	3.8	-	3.7	-	3.6	-	3.5	-	3.9	-
총 자 산	100.0	5.7	100.0	5.9	100.0	5.3	100.0	5.1	100.0	5.2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6 3/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T/M 및 C/M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직급과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1.3%p 증가한 13.6%를 기록하였음.
- 방카슈랑스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1.3%p,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의 4.5%를 기록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대리점과 보험설계사를 통해 거수된 원수보험료 비중은 각각 45.4%, 35.2%를 기록하였으며, 이들의 성장세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1.6%p,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1/4	2/4	3/4
회사직급	14,617	28,894	30,336	9,694	18,875	29,029
	12.0	12.3	12.2	14.2	13.6	13.6
보험설계사	43,592	66,438	89,616	23,953	49,034	74,807
	35.9	35.8	35.9	35.2	35.3	35.2
대 리 점	57,563	87,361	117,211	30,988	63,081	96,627
	47.4	47.0	47.0	45.5	45.4	45.4
중개사	1,302	2,133	2,677	573	1,185	1,809
	1.1	1.1	1.1	0.8	0.9	0.9
방카슈랑스	3,806	5,999	8,370	2,679	6,317	9,579
	3.1	3.2	3.4	3.9	4.5	4.5
공동인수	626	954	1,318	238	564	949
	0.5	0.5	0.5	0.3	0.4	0.4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6 3/4분기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생산성은 임직원을 비롯한 설계사 및 대리점의 모든 채널에서 뚜렷한 향상을 나타냄.

- 임직원의 생산성은 온라인 채널 실적이 포함되면서 전년동기보다 24.6% 증가하였으며, 보험설계사의 생산성은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리점의 경우 효율적인 생산관리 차원의 대리점수 축소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2.4%의 증가세를 기록함.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2,223	25,611	25,804	25,730	25,956	26,067
	65,774.4	89,390.5	117,526.8	37,677.6	72,718.1	111,364.2
보 험 설 계 사	59,739	75,728	72,116	74,230	74,823	76,390
	72,970.3	87,732.5	124,256.8	32,269.0	65,532.8	97,928.2
대 리 점	43,193	45,758	45,646	45,493	45,381	45,038
	133,270.1	190,919.3	256,782.2	68,115.8	139,002.4	214,545.7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박정희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1. 손해보험회사,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개발·판매

<개요>

전자금융거래
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전자금융거
래법」 제정

□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06.4.28)하여 '07.1.1부터 시행

- 동 보험은 금융소비자가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그 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 현재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내용을 기초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금년 1월부터 판매*

*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제출상품에 해당되므로 개발후 즉시 판매가 가능하며, 금감원에는 판매후 분기별로 제출

<전자금융거래법의 보험관련 주요내용>

전자금융사고
의 발생피해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가 배상 책임

①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책임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법 §9 제1항)
- 단, 전자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면책(법 §9 제2항)

금융기관 등은
배상책임 이행
기준에 따라
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②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책임이행 방법

-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법 §9 제4항)

*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규정 §6 제4항)

③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보상한도

-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시 보상한도는 금융업종별, 전자금융업무별로 다음의 금액 이상으로 설정(규정 §6 제1항)

<금융업종별 기준>

보상한도는
금융업종별
전자금융업자
별로 상이

구 분	보험금액	대상 기관
은행 권역	20억원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10억원	지방은행, 외은지점,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 권역	5억원	증권회사, 증권금융, 선물업자
기타	1억원	기타 금융기관[보험회사,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전자금융업자별 기준>

구 분	보험금액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2억원
전자화폐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1억원

준비금적립은
보상한도에
준하는 금액
보유

④ 준비금 적립기준

-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의 보상한도에 준하는 금액을 보유(규정 §6 제2항)

보험동향 2007년 봄호

⑤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의 병행

-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병행시 보험(공제) 보상한도는 보험(공제)금액에서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규정 §6 제3항)

전자금융거래
대상기업은 총
4,337개이며,
예상시장규모
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약110
억원으로 추정

<전자금융거래 대상기업 및 시장규모>

- 전자금융거래 대상기업은 06. 10월말 현재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 총 4,337개이며,
- 시장규모는 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저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약 110억원으로 예상

<전자금융거래 대상기업 및 예상 시장규모>

금융기관	대 상 기업수	최저보상한도 및 준비금	예상 보험료
시중은행(7),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9개	20억원	30억원
지방은행(6), 외은지점(53), 수협중앙회, 산업은행, 우체국, 카드(6)	68개	10억원	20억원
증권(34), 증권금융, 선물 보험(손/생보)	45개	5억원	50억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농·수협	31개	1억원	5억원
전자자금이체기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기업	4,165개	1억원	5억원
전자화폐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19개	2억원 1억원	준비금 적립
합 계	4,337개	1,140억원	110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 1. 4.

(박정희 연구원)

2. 보험료 산출시 자사의 경험위험률 적용 확대 유도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관행적으로
경험위험률
적용을 기피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출시 필요한 위험률에 대한 적용실태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관행적으로 경험 위험률 적용을 기피하고 참조위험률 또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보정위험률을 적용하고 있음.

- 2000.4.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보험료산출에 적용하는 위험률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보험금 지급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경험위험률을 적용함.
- 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업계 평균수준의 참조위험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보험업감독규정§7-63)함.
-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산출에 적용하는 위험률은 총 3,594종(생명보험 585종, 장기손해보험 920종, 일반손해보험 2,089종)이나 경험위험률은 생·손보 각각 59종(10.1%), 68종(7.4%)에 불과하는 등 자사 경험위험률 개발이 저조

□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보험가격 자유화를 저해하고 이원별 손익 왜곡현상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킴.

보험가격
자유화를
저해,
이원별손익
왜곡현상 등
야기

- 회사별로 경험위험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경험위험률 대신 업계 평균 수준의 참조위험률을 보험가격 산출에 적용하여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비슷한 보험료(위험보험료)를 보험소비자에게 제시하는 등 보험가격의 차별화가 담보 상태임.
- 보험회사가 참조위험률을 사용하는 경우 경험위험률과 참조위험률간의 위험보험료 차이는 예정사업비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보전되고 위험률차 손익이 사업비차손익으로 대체되는 이원별 손익 왜곡현상이 나타남.

**참조위험률
적용관행을
지양하도록
유도**

-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참조위험률 적용 관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며 위험률 산출 운영 등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을 권고함.
 -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참조위험률 산출시 각 보험회사가 제출한 통계를 바탕으로 회사별 경험위험률을 산출토록 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제공토록 권고함.
 - 금감원 상품 심사 시 위험률 적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여 기본적으로 경험위험률 사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자사의 경험통계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도록 함.
 -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로 하여금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하여 경험위험률 적용에 대한 자율규제를 유도함.

**이번 조치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보험소비자 권익의 확대와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의 기반 마련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이번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보험가격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경험위험률 사용이 활성화되면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현금흐름(cash flow)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의 도입이 연착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07.1.9.

(김세중 연구원)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공고 제2007-57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2007.2.16~2007.3.8)함.

<개정이유>

-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방법·절차 등과 재활시설 운영자 요건·지정절차 및 재활시설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는 2006년 12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812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도입 및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재활시설운영기관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

<주요 개정내용>

① 시행령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 사업 신설
및 재활시설
운영자 요건
보완

-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19조의 2, 신설)
- 재활사업의 부수사업을 재활관계자 보수교육, 재활관련 조사·연구, 재활상담으로 명확히 함.
- 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안 제19조의 3, 개정)
- 의료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함.

- 다.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9조의 6, 신설)
- 재활시설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② 시행규칙

보험회사업자 의무보험 계약만기 안내통지 의무화

- 가. 보험회사업자등의 의무보험 계약만기 안내통지시기를 계약 종료일 30일전은 종료일 75일전부터 30일전까지, 계약종료일 10일전
은 종료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로 규정(안 제2조, 개정)

- 변경규제
 - 보험회사업자의 의무보험 계약만기 안내통지를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시 보험회사업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함.

-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시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하고, 의무보험 가입사실 증명시 즉시 영치를 해제(안 제3조의 3, 신설)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도입

- 신설규제
 - 보험회사업자등이 자동차보유자에게 만기안내 통지시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시 영치증 교부 및 자동차등록관서에 통보함.

*자료 : 건설교통부 법령자료, 2007. 2. 16.

(박정희 연구원)

4.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

① 조사의 개요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3차 조사를 실시

- ☐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는 한국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전반적인 가치관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 5년에 한번 실시함.
- 1996년 처음 실시된 이후 2001년 2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3차 조사를 실시함.
-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2580명을 대상으로 2006.11.6 ~ 2006.11.29 기간 동안 개별면접조사로 진행됨.
- 조사내용은 한국인의 개인 의식, 한국인의 사회 및 국가 의식, 한국인의 행태, 한국인의 가치관 등 네 부분으로 이루어짐.
- 아래에서는 보험업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녀 및 부양, 건강문제, 사회복지, 노후대비에 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요약함.

② 건강에 대한 설문

대체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하는 편임

- ☐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61.9%로 걱정된다는 응답(38.0%)에 비해 높았으나, 상당수(10명중 4명)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남자가 65.0%로 여자(58.9%)보다 높고,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학생(76.0%) △300~399만원 소득층(71.7%) △중상위 이상 계층(71.2%)에서 높게 나타남.
- ☐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다’는 응답이 18.3%, ‘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건강을 신경 쓰면서 하는 일이나 운동이 있다’는 응답이 37.3%로 나타나, 건강을 위해 규칙적/비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55.6%)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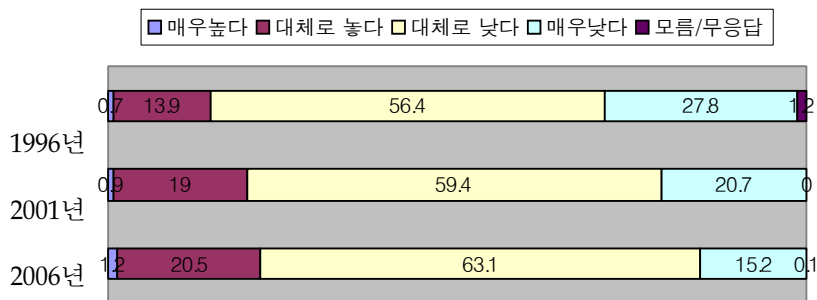
-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4.1%인 반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에서는 56.6%가 건강상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건강상태가 차이를 보임.
-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나 운동이 없다’는 응답은 여자가 47.3%로 남자(41.2%)보다 높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높으며 △농어민(55.2%) 및 생산직(5.0%) △중하위 이하 계층(49.1%)에서 높음.
- 반면,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나 운동이 있다’는 응답은 △남자(20.4%) △사무직(22.6%) 및 관리/전문직(21.6%) △400만원이상 계층(20.8%)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높게 나타남.

③ 사회복지에 대한 설문

- 일반국민들의 21.6%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대비 사회복지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78.3%는 우리나라 경제수준 대비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78.3%는
우리나라
경제수준
대비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응답

<그림 2> 경제 수준대비 사회복지수준



- 경제수준 대비 국민들의 복지비용 부담 수준에 대해,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30.1%, ‘부담이 낮다’는 의견이 33.8%로 부담이 낮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남.
- 경제수준 대비 국민들의 복지비용 부담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여자(31.3%)보다는 남자(36.4%)가 더 높음.

④ 노후대비에 관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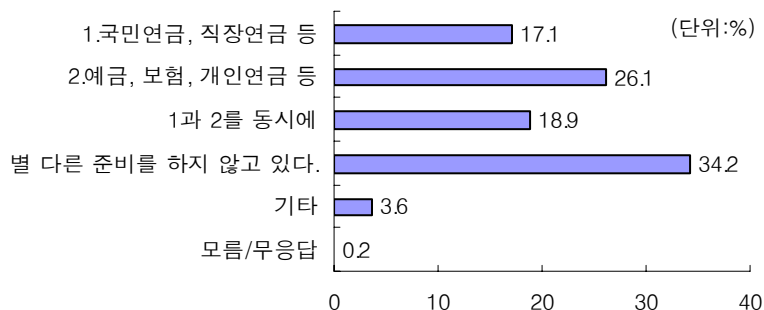
51.3%가
개인적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으며, 국민연금, 직장연금 등만을 넣고 있다는 응답이 17.1%로 응답자의 과반을 상회하는 51.3%가 개인적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36.0%(17.1%+18.9%)는 국민연금/직장연금을 노후를 위한 대비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음.

□ 노후대비를 위한 책임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93.6%로 가장 높으며,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85.0%로 복지기관이나 단체(72.6%) 또는 자녀나 자녀의 가족보다도 높게 나타남.

<그림 3> 노후대비 방안



노후대비를
위한
책임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있다고
생각

○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응답 역시, ‘본인이나 배우자’가 43.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정부(34.2%)’, ‘복지기관이나 단체(20.0%)’, ‘자녀나 자녀의 가족(9.6%)’의 순임.

○ ‘본인이나 배우자’가 노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며, 특히 학력이나 소득이 높을 수록 높게 나타남.

* 자료 : 국정홍보처 “200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07.1.26.

(김세중 연구원)

5.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추진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판매현황 조사

- ☐ 금융감독원이 '07.2월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각종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881개의 판매현황을 조사하고, 특별약관 개선방안을 추진함.
- * 보상범위를 확대하거나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거나 할인받기로 약정하고 보통약관에 추가하여 가입
- 상당수 특약상품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여 상품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과 시스템 유지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지출을 초래
- 일부 특약상품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특약상품의 합리적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의 문제점>

① 고객의 수요가 적은 실효성 없는 특약상품의 난립

자동차보험

일부 특약상품 중 문제점 발생 우려로 인한 재정비가 요구

- ☐ 보험회사고발 발생 가능성 및 고객의 수요가 적은 실효성 없는 특약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다른 보험회사도 이를 모방한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함에 따라,
- 상당수 특약상품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고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음.

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유발 가능

-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손해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등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약이 있음.

③ 보장내용이 유사함에도 보험금 지급기준이 상이

-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임에도 보험금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보험가입자의 혼란초래 및 분쟁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약

④ 보험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

- ☐ 보험금 지급기준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분쟁유발 소지를 내포

⑤ 특약상품의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 상존

- ☐ 수많은 특약이 난립함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특약에 가입하고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지급되는 사례 발생 가능성
- ☐ 이로 인해 민원유발 및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이는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시
시장 조사 및
내부검증절차
에 있어
소홀함에서
비롯됨.**

<발생원인>

- ☐ 보험상품 개발 · 판매시 수요예측 등 철저한 시장조사 및 엄격한 내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나,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이를 소홀히 한 채 경쟁적으로 상품을 개발 · 판매하고,
 - o 다른 보험회사가 개발 ·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도 수익성 등의 전망에 대한 충분한 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모방하여 판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개선방안>

- ☐ 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07.2월중 손보험회 內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T/F*」를 구성하여,

* 손보험회와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참여

- o 현재 판매중인 특약을 원점(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특약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거나 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 특약상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임.

**불합리한 특약
폐지 및 통폐합
등 보험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및 시스템
개선을 예정**

* 보험가입자가 실수로 보험금 청구를 누락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자발적으
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산시
스템 구축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 '07.4월까지 보험회사별로 정비계획을 마련·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할 예정임.

□ 아울러, 향후 보험회사가 신상품 개발·판매시 철저한 시장조사
등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내부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
약상품이 불필요하게 난립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임.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07. 2. 21.

(박정희 연구원)

6. 퇴직연금 설문조사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 노동부가 2006년 12월 조사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가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낫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 리서치기관인 SIS리서치앤컨설팅에 의뢰해 전국의 사업장 360개소, 근로자 540명을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노사 대부분은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퇴직연금제도가 낫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① 퇴직연금 도입 후 퇴직금제도와 비교

퇴직연금 도입
전후 근로자의
만족도를 비교
조사

-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낫다고 응답한 비율(사업장 39.5%, 근로자 46.3%)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사업장 2.3%, 근로자 8.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입장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00점 척도
전 체		(180)	0.6	1.7	58.3	33.9	5.6	60.6
퇴직 연금 형태	DB	(54)	0.0	1.9	72.2	25.9	0.0	56.0
	DC	(106)	0.9	1.9	53.8	35.8	7.5	61.8
	DB&DC	(11)	0.0	0.0	36.4	54.5	9.1	68.2
	IRA	(9)	0.0	0.0	55.6	33.3	11.1	63.9

<근로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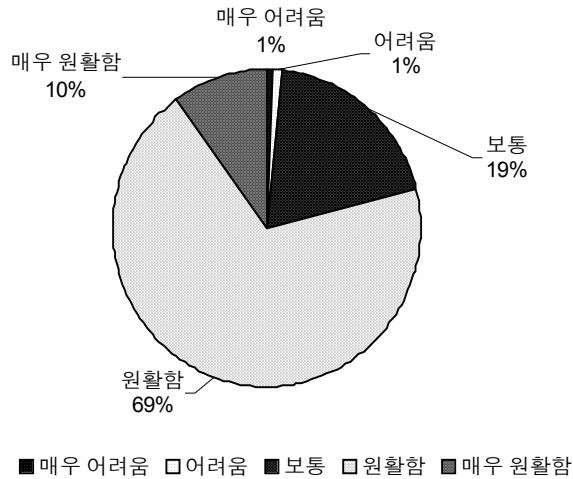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5	13.3	44.8	30.0	5.2	5.2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2	8.9	37.4	40.4	5.2	5.9
주위에 권장할 것이다	3.0	14.4	34.8	34.8	3.7	9.3
퇴직금보다 더 낫다	1.5	7.0	36.3	40.0	6.3	8.9
퇴직연금을 못 받을까 불안하다	9.3	35.9	26.3	20.0	4.1	4.4

② 노사합의 과정

노사합의
절차에 있어
원활한 진행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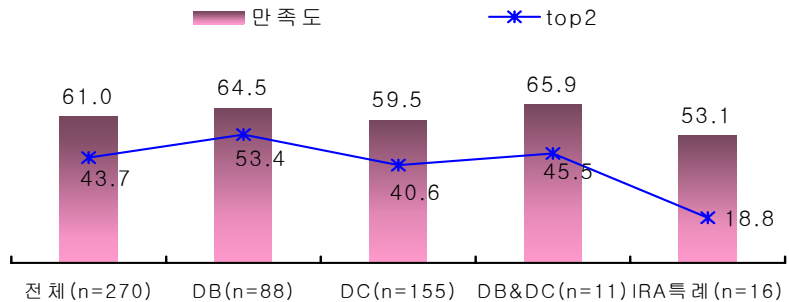
- 퇴직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사간 합의절차에 대해사용자의 대다수(78.9%)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답했으며,
- 근로자들도 노사 합의절차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43.7%)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4.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n=270,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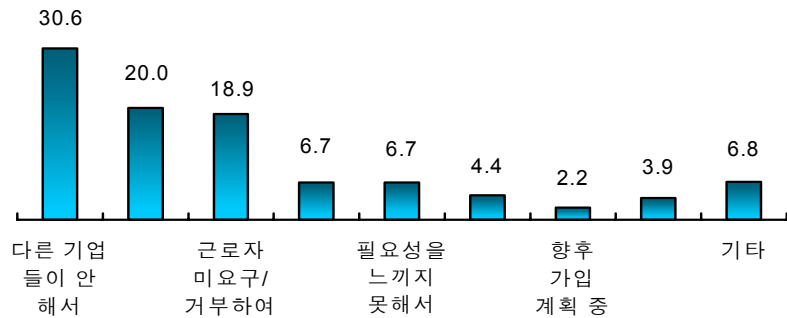


③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

퇴직연금
미도입 이유는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기
때문으로 조사

□ 한편,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기업들이 안해서'(30.6%),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20.0%),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거나 거부하여'(18.9%) 순으로 나타남.

(n=18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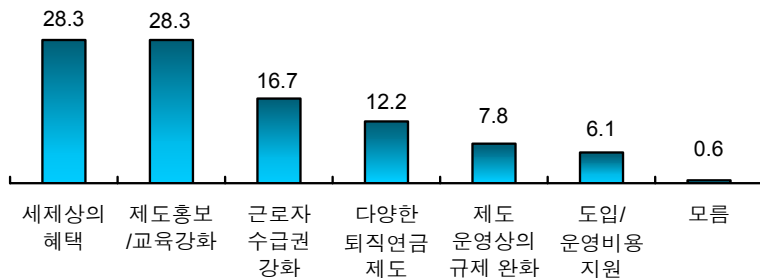


④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제도 도입시
세제혜택상의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세제상의 혜택 확대'(28.3%), '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강화'(28.3%), '근로자 수급권 강화'(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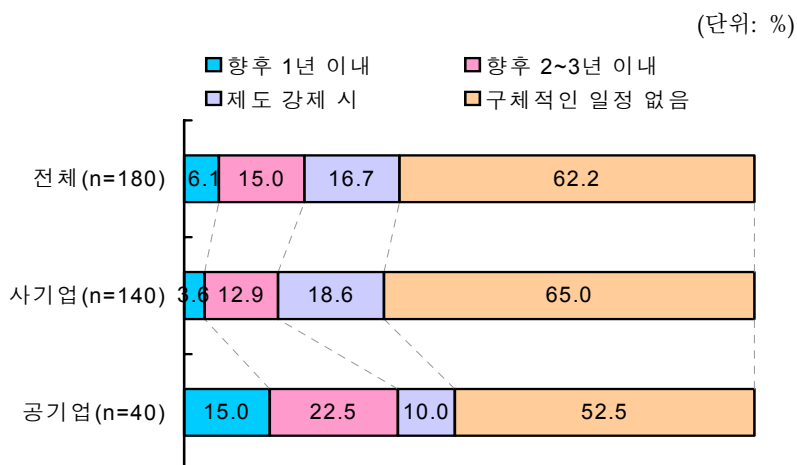
(n=180, 단위: %)



⑤ 퇴직연금제도 도입계획

향후 퇴직연금
도입여부
일정은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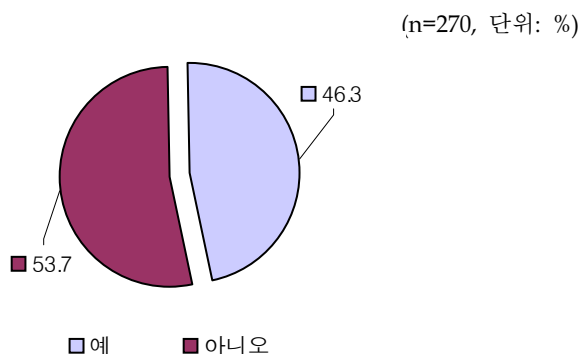
- 향후 퇴직연금제도 도입계획에 대해서는 조사 사업장의 62.2%가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1년 이내 도입이 6.1%, 향후 3년 이내 도입이 15.0%, 제도 강제 시 도입이 16.7%로 응답함.



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의사

퇴직연금
비가입자 중
절반 수준이
향후
가입의사를
보임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절반 정도(46.3%)가 향후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시기는
회사의 제도
도입 시점임

⑦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시기

☐ 가입시기에 관한 항목에서는 대부분(74.4%)이 회사가 제도를 도입한 시점에 가입할 것이라고 응답함.

(n=30, 단위: %)

		사례수	회사에서 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제도 도입후 동료들의 참여율에 따라	제도 도입후 일정기간의 수익률 추이 등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가능하면 가입을 미루겠다
전체		(125)	74.4	4.8	19.2	1.6
성별	남자	(111)	77.5	2.7	18.0	1.8
	여자	(14)	50.0	21.4	28.6	0.0

*자료 : 노동부 참고자료, 2007. 2. 23.

(박정희 연구원)

7. 민영보험회사 가축공제에 참여

가축공제
사업에
올해부터
민영보험회사
도 참여

□ 각종재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비하는 가축 공제 사업에 올해부터 민영보험회사도 참여하여 농가의 선택폭 확대될 예정임.

- 농림부는 '06 하반기 약정 체결을 통해 금년부터 민영보험회사 (LIG, 현대, 동부, 삼성 컨소시엄)도 가축공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농가는 민영보험회사의 참여로 서비스 정도 등에 따라 공제 사업자 선택이 가능해짐.
- 농가가입 유도를 위한 업체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대 농가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금년부터
축사도
공제료의
30%를 지원

□ 정부는 지난해까지 가축에 대해서만 공제료의 50%를 보조해 왔으나, 금년부터 축사도 공제료의 30%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 이러한 조치는 화재·설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가가 재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축사에 대한 공제료 지원은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 이중지원을 방지할 것임.

가금류에
대한
보장범위를
설해피해까지
확대

□ 가금류에 대한 보장범위를 설해피해까지 확대하며 가입대상 축종에 타조와 거위도 새롭게 추가됨.

- 가금류는 설해발생시 그 피해가 크고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그동안 공제사업자가 보장을 기피하였으나 농가에 대한 재할기반 강화를 위해 눈으로 인한 피해도 주 계약으로 보장할 것임.
- 사고 피해 등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재할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입축종의 범위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역점

- ('07년) 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 타조, 거위 등 11축종에서 ('08년) 산양, ('09년) 토끼, ('10년) 꿀벌 까지 확대할 계획임.
- 이 외에도 농림부는 공제사업자가 축사 전기안전점검과 가축 무료 진료사업 등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함.

<표 1> '07년부터 달라지는 가축공제 주요내용

구분	'06년까지의 현황	'0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공제사업자	○ 농협	○ 농협, 민영보험회사 컨소시엄 (LIG, 현대, 동부, 삼성)
축사특약	○ 보조 없음	○ 보조 30% -단,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기 가입자는 보조지원 제외
보장범위	○ 가금류 설해피해 보장 없음	○ 가금류 설해피해 보장을 주계약으로 신설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	○ 거위, 타조 추가 -9개 축종 -> 11개 축종

* 자료: 농림부 보도자료, 2007.2.8.

(김세중 연구원)

8. 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 보장 확대

<목적>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일부
및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

-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함.

<시책 및 추진방향>

집중호우,
우박 및 태풍
피해로 인한
보상기준
확대 및 개선

- ☐ 농림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을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품목조합 창구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 정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평균 보험요율을 전년 (8.21%) 대비 9.7% 인하된 7.41%로 조정하고, 순보험료의 50% (특별지원 5.6% 별도),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함.
 -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인 호우인정 기준, 우박 및 태풍 피해시 감수량 인정기준 등을 완화하여 보험가입 농업인의 보장수준을 확대할 예정임.
- ☐ 또한,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확대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임.
 - 올해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 품목은 보장수준 확대를 위해 현행의 특정위험(태풍, 우박 등) 보상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임.
- ☐ 농림부는 기상청 등에서 올해의 기후를 “지구온난화 지속”, “태풍의 대형화 예상” 등 예년에 비해 이상기상 현상이 잦을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 거대 자연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농가별 산출 보험료의 50%와 요율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농가부담분의 1/3 특별지원	<지원내용> ☐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자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뽕은감, 밤, 참다래, 자두 재배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별로 산출한 보험료의 50%와 '04년 요율대비 '07년의 요율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농가부담분의 1/3를 별도로 특별지원 ※ 보험요율 현실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요율 인상분에 대해서 농가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여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04년 대비 농가 부담 인상보험료의 일부를 '05년부터 특별 지원 ○ 특별지원율 : ('05)농가부담인상분의 2/3→('06)1.5/3→('07)1/3→('08)0.5/3→('09)0
농작물 재해보험회사 업을 운영하는 재해보험회사 업자 지원	☐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재해보험회사업자 ○ 지원기준 : 보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급방식 : 실제 필요비용을 실사, 지급 ○ 재해보험회사업자는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기 위한 피해통계자료 축적, 손해평가방법 개발, 도상연습 등 보험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음. ※ 운영비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재정지원)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회사업을 운영하는 재해보험회사업자에게 지원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보험실시 대상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소재지의 지역(품목)농협에 가입을 신청, 가입신청을 통해 농가별 부담 보험료가 산출된 후 농가부담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됨.	

**재해보험대상
농작물 및
자연재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추진체계>

- 농림부는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30개 작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자료: 농림부 보도자료, 2007.3.2.

(박정희 연구원)

9.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배경>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중
민원 및 분쟁
유발소지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개선함

- ☐ 현재 보험회사가 운영 중인 보험약관에서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개선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개선내용으로는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 보험기간 중 재발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8개 사항을 보험회사로 하여금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함.
- *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대상이 아님.

<개선내용>

① 보험보장 대상이 되는 질병 발생 기준의 개선

- ☐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전에 치료된 질병이 보험기간 중 재발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불지급 → 지급

② 부담보 처리된 특정부위에 질병 발병시 계약 유지

- ☐ 부담보기간(암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중 부담보 부위(특별조건부 인수특약 부가시)에 암 발생시 계약을 무효처리 → 계약 유지

③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및 조건 개선

- ☐ 입원을 동반하지 아니하거나 신체의 절제(切除) 등이 필요 없는 수술시 수술보험금 불지급 → 지급

④ 포괄적인 상품명 및 보장명칭의 구체화·명확화

- ☐ 상품명 및 보장 명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보험금지급
및 계약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약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

⑤ 장례서비스 등 제휴서비스에 대한 안내 강화

- ☐ 장례서비스 등 제휴서비스의 안내 및 설명을 사업방법서 및 안내 자료 등에 명기

⑥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불지급요건 명확화(손해보험)

- ☐ 피해자 측의 100% 과실일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운전자보험)

⑦ 이륜차운전 부담보 특약에서 일회적 운전 보장확대(손해보험)

- ☐ 이륜차를 '일회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담보하도록 함(종래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부담보)

⑧ 보험기간 종료이후 계속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손해보험)

- ☐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서 입원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 후의 입원보험금 불지급 → 지급

불합리한
약관조항은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사항〉

-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3.20.

(박정희 연구원)

해외보험 동향

1. 북미동향 : 캐나다

〈생명보험시장의 판매 잠재성〉

① 거대한 잠재시장

캐나다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구주 사망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 캐나다 가구의 거의 절반(6백만 가구)이 가구주가 사망할 경우 즉시 생활비문제에 봉착하거나 단지 몇 개월 동안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함.

○ 조사대상 중 38%의 가구는 충분한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함.

- 많은 캐나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보다 많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믿는 40%의 사람들이 향후 1년내 생명보험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향후
보험가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

- 그러나 과연 실질구매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며 과거 사례로 볼 때 그들 중 많은 수가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실제로 생명보험을 구매하지 않음.

- 즉, 단지 15%의 가구만 실제로 생명보험을 구매하며, 이는 12월 내에 구매할 예정이라고 답한 22%보다는 훨씬 낮은 것임.

② 목표고객시장

□ 향후 보험가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5백만 가구는 다음과 같음.

**보험가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고객
분류**

- 현재고객 : 2/3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다른 보험을 찾고 있음.
- 처음 구매하는 고객 : 1/3은 아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 중 89%는 조언을 구할 생명보험 설계사, 중개인 등이 없는 상태임.
- 중년이하 고객 : 특히 자녀가 있는 계층
-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 : 목표고객 시장이 어디든 현재고객과 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믿는 모든 소득 계층 내 잠재고객을 찾을 수 있음.
- 자산이 적은 가구 : 자산이 적은 가구에서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은 제일 높음.
- 전국적 현상 : 12월내 생명보험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은 지역에 상관없이 같음.

③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

□ 고객들이 생명보험 가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매를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객들은 퇴직
후 저축 및
가족부양 비용
등으로 보험
구매의
중요성을 낮은
수준으로 인식**

- 낮은 우선순위 : 고객들은 퇴직을 위한 저축과 자녀들의 나은 생활을 위한 가족소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항목보다 보험상품 구매의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음.
- 구매능력 :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아직까지는 생명보험 비용이 낮다고 생각되어진 적은 없었음.
 - 보험가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둔 젊은 가족들이며(가구의 평균연령이 42세임) 만약 이들 가구가 정기보험을 구매한다면 필요한 추가보험을 구입하기 위해 월 30~40달러의 비용이 들 것임.
 - 일부 가구는 보다 비싼 종신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어려운 구매경로 : 고객들은 보험구매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여김. 10가구 중 6가구는 어떤 유형의 보험을 얼마만큼 구매할지 아는 데 어려움을 느낌.
- 지식의 부족 : 약 절반의 가구가 생명보험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느끼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구매를 지체하고 있음.
- 지연 : 많은 수가 그냥 구매를 망설임.
- 압박판매 : 10가구 중 6가구는 압박판매방식 때문에 생명보험을 구매하지 않고 접근에 저항한다고 말함.

④ 판매 잠재성

- 10가구 중 약 2가구는 전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가입가구에서조차도 1/3은 추가적인 생명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믿음.
- 전문가들은 가구당 적어도 7내지 10년 동안의 소득을 대체할 충분한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전형적인 캐나다 가구는 이러한 조언에 따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입금액(\$278,100)을 두 배로 증액할 필요가 있음.
- 각 가구가 현재 보유중인 보험가입액과 주소득자의 사망시 적절한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함.
- 충분한 생명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느끼는 가구의 38%가 6.2년의 소득을 대체할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재는 단지 3.0년을 대체할만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함.
- 이 차이는 3.2년의 가구소득과 같으며 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9만7천달러의 보험을 구매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들은
7~10년 동안
소득을
대체할
생명보험이
필요할
것으로 조언**

추가적인 보험
구매로 인해
생명보험의
판매잠재성이
클 것으로
예상

- o 12월내 생명보험을 구매할 계획인 가구의 22%에게 보유보험(4.0년)과 필요하다고 말하는 보험(5.9년)에는 평균적으로 1.9년의 가구소득의 차이가 있음.
- o 이러한 가구들은 차이를 줄이기 위해 12만8천달러의 보험을 구매할 필요가 있음.
- o 구매를 계획 중인 가구들은 보다 젊고(38세 vs. 49세), 구매가능성이 낮은 가구보다 부모일 가능성이 두 배(47% vs. 25%)임.

⑤ 시장 침투가능성

- 만약 5백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믿는 만큼의 보험가입을 한다면 가입금액은 9천 85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이고 추정컨대 2십억달러의 보험료가 증액될 것임.

가입부족상태
인 캐나다의
생명보험시장은
잠재가입금액이
미국의 약 1/10
수준

- o 1년내 생명보험을 구매할 의도가 높은 가구의 22%만 실제 보험을 구매하더라도 총가입금액은 3천 710억달러정도 증가할 것이고 보험산업수익은 10억달러가 늘어날 것임.
- o 캐나다의 가입부족상태인 생명보험시장의 잠재가입금액은 미국 경우의 약1/10임.
- o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적은 수의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부족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어떤 금융기관에게도 이러한 잠재성은 상당히 매력적임.

⑥ 추가적인 판매기회

- 퇴직계획은 지금까지 가장 호소력이 높은 재무분야임.
- o 거의 1/3의 캐나다 가구는 기꺼이 퇴직저축상품에 관해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좋아함.
- o 생명보험 : 젊은 가구와 소득이 높은 가구는 보험특약과 새로운 생명보험상품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관심을 갖는 주요한 계층임.

**퇴직관련
보험상품이
가장 호소력
있는 분야로
제시**

- 장애소득보험(DI) : 부모, 젊은 가구, 그리고 고소득가구는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재무적 도움을 제공하는 상품에 관심을 갖는 계층임.
- 장기간병보험(LTC) : 고소득가구는 장기간병보험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데 관심이 높음.
- 재무계획 : 가구의 부가 많아질수록 재무계획은 중요해짐. 재산이 최소 50만달러 이상인 가구의 1/3은 전문가와 재무계획에 대해 상의하고자 함.
- 교육저축계획 : 젊은 가구와 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저축하는 상품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고자하는 계층임.
- 치명적질병보험(CI) : 소수의 소비자들만이 치명적질병보험에 관해 상의하고자하지만 45세이하 가구는 관심이 높음.
- 재무설계사들(FP)은 퇴직설계, 자녀교육을 위한 저축, 그리고 재무계획과 같은 활동에 있어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제일선이었음.
- 은행전문가들은 퇴직계획과 자녀교육을 위한 저축계획을 개발하는데 있어 항상 차선책임.
- 생명보험자문가, 모집인, 그리고 중개사들은 생명보험, 치명적질병보험, 장애소득보험, 그리고 장기간병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자문에 있어 가장 많이 선택되어짐.

**전문가들은
퇴직계획 및
저축, 보장성
보험에 대한
자문을 제공**

⑦ 도전

- 결국 5백만 가구의 잠재시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 보험가입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찾는 것이 커다란 도전은 아님.
- 다수가 구매 가능한 보험을 적당한 금액만큼 필요로 하는 중간 소득계층 가구임.
- 그들은 젊기 때문에 비용이 이슈가 되며, 정기보험상품이 최상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현재의 예산에 부합될 수 있음.

**추가적인
보험가입으로
인해 정기보험
판매가 확대될
것임**

- 정기보험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단지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 가구보다 가입금액이 큼(\$308,600 vs. \$234,000).
- 보험가입이 적은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종류와 금액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단순한 수준의 정기보험이 이러한 계층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LIMRA의 캐나다 개인생명보험판매조사에 따르면 정기생명보험이 2005년 판매된 계약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젊은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하고 경쟁적인 가격이 설정된 정기보험은 비용 효율적이고 다중 대면 면담을 하지 않는 유통방식에 영향을 미침.

**LIMRA에
따르면
캐나다의
정기생명보험
의 판매실적은
49%를 차지함**

- 보험산업에 대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어떻게 이러한 시장에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임.
- 보험산업에는 이러한 가입부족시장(다수가 중산층 가구임)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알려졌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시장을 잡기위해 DM, 콜센터, 현장, 그리고 인터넷보다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포함한 유통체제를 확대해왔음.
- 그러나 수 십 년간에 걸친 유통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잠재적 가구가 아직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음.

⑧ 구매희망자에 대한 접근

- 보험산업은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중요하고도 복잡한 재무적 의사결정에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음.
- 비대면 유통방식은 이러한 보험가입부족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접근하는데 실패했음.
- 보험가입부족 가구의 38%는 모집인과의 대면기회가 있을 경우보다 구매가 용이할 것이라고 하는 반면 3/10은 전체판매과정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질 경우 구매를 망설일 것이라고 말함.

향후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

- 또한 1/4는 전에 접촉했던 사람의 우편권유를 받을 경우 역시 구매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함.
- LIMRA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생명보험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함.
 - 신뢰성 : 어느 보험을 얼마만큼 구매해야 할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소비자들은 구매를 원함.
 - 9개의 속성리스트로부터 신뢰는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며, 소비자의 61%가 모집인이 신뢰하는 사람일 경우 구매가능성이 높다고 답함.
 - 추천 : 추천은 신뢰를 야기하는 중요한 방법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닌, 친구 또는 친척이 추천한 사람과 가망고객이 만났을 때 구매율이 높음.
 - 45%의 가구가 누군가 보험모집인을 추천하는 경우 구매가능성이 높다고 함.
 - 구매압력이 없는 환경 : 가망고객은 재촉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상의 접촉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선택안에 대해 상의하고 검토하길 좋아함.
 - 거의 3/4의 소비자들은 첫 만남에서 모집인이 구매압력을 줄 경우 구매가능성이 낮다고 말함.
 - 단순성과 간결함 -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의 구매가 혼동스럽고 복잡하며 전체 과정이 단지 불편하다고 함. 소비자들은 이해 가능한 용어와 상품내용, 가치, 비용에 대한 명료한 답을 원함.

* 자료 : LIMRA International, "Billion dollar baby : Sales Potential of the Underinsured Life Market in Canada", 26. Jan. 2007

(김진익 선임연구원)

2. EU 동향

<영국 FSA,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산업의 위험성 경고>

기후변화와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기온의 상승과 자연재해의 발생 증가가 예측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에 의해 1세기 내에 지구 평균기온이 4℃ 가량 상승할 것이며 해수면은 최대 59cm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의 4차 보고서를 2월초 발표하였음.
- 이 보고서에서는 이전까지 지구의 여러 부분 즉, 대기나 지표 또는 해수면 아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기온이 점차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밝혀, 지구 온난화가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하였고 또한 집중호우, 태풍의 강도가 강해져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 최근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에서도 각국의 지도자와 경영자들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핵심의제로 지목하였고 특히, Lloyd's 등 보험업계가 우려를 표명함.
- 영국기상청은 세계기온이 장기평균(1961~1990)인 14℃에 비해 2007년 0.54℃ 가량 상승할 것이며 약 60%의 확률로 2007년이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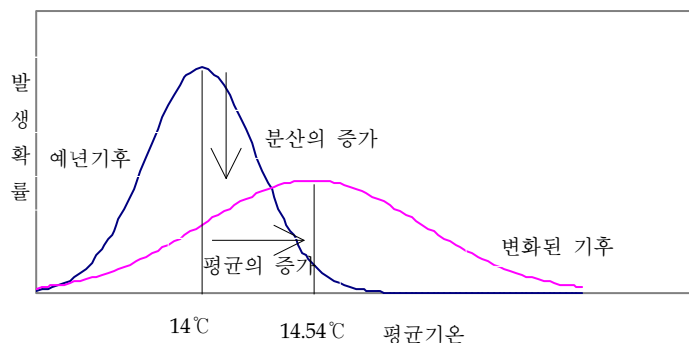
FSA는
금융부문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

- 영국의 FSA는 기후변화가 금융부문에 상당한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함.
- 영국 금융감독청 FSA는 2007년 금융리스크 전망(Financial Risk Outlook 2007)을 통해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가 금융부문에 큰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천명함.

기후변화는
금융회사
수익에
악영향을
미침

- 이 보고서에서 FSA는 세계경제에 대한 기후 변화의 충격이 기간 산업과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 증가를 통해 나타나며 이것은 상당할 것이라 예측하고 금융서비스 산업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응해야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
-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개별 금융회사의 투자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960년대 이후 거대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크기는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과학적 연구들은 이러한 거대 재해의 증가와 평균기온의 상승이 인간에 의해 야기된 기후변화라고 주장함.
 - 기후변화는 극심한 기상이변에 대한 빈도를 증가시켜 각종 사업진행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회사의 물적 자산을 위험으로 몰아갈 것이며, 이로 인해 상업적 재물들이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에 각 기업의 투자수익은 낮아질 것임.
 - 이러한 산업에 대한 물리적 충격과 상품 공급채널에 대한 혼란은 주식시장에서의 높은 변동성을 야기하며 이는 소매투자자와 도매투자 모두에서 투자수익의 변동성으로 전환될 수 있음.

<그림 1>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기온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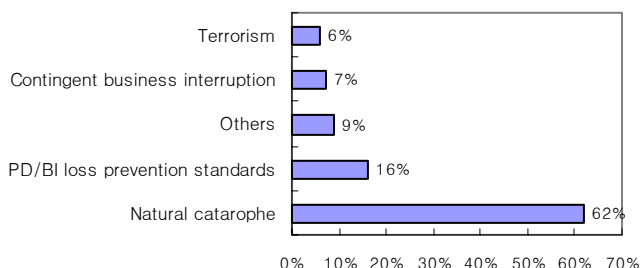
기후변화는
금융센터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위험은 개별 금융회사 뿐 아니라 국제금융센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금융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음.
- 특히 런던, 뉴욕, 도쿄와 같은 국제금융센터들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홍수의 증가 및 해수면의 상승, 그로 인한 기반토양성분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산업이 외부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상품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기회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임.

기후변화는
보험회사들
에게 특히
영향이 큼

-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위험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보험회사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됨.
- 미국 AON의 200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가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자연재해를 미래의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극심한 기상이변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험금 청구 횟수의 증가와 담보되는 피해액의 증가를 가져와 보험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 줄 수 있음.

<그림 2> 영국 보험회사들이 꼽은 미래위험



자료 : AON "European Property, liability and D&O report" 2006. 12

**자본조달문
제와 소비자
선택 문제
발생**

- 이러한 보험금 청구의 증가는 건강보험과 가구보험 등의 개인보험과 자산 및 책임과 관련된 상업보험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임.
-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위험은 보험회사들에 있어 자본조달의 문제를 야기하며, 보험소비자들에게 증가된 위험을 인식시켜야 하는 추가적 문제도 발생.
- 기후변화는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더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자본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자연 재해의 경우 무관할 것 같은 사건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한 사건이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것은 극한의 사건에 대한 빈도를 높여 보험회사들의 자본 요구도를 높일 것임.
-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자본을 늘리기가 어려운 환경 하에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
- 더욱이 보험회사들이 기상변화에 기인한 리스크를 측정,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경우, 보장내용에 있어 보험료를 인상시키거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게끔 언더라이팅을 강화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들을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

-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음.
- 얼마 전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표한 ‘2007년 기후전망과 대책’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또한 2007년, 과거에 비해 평균 기온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상기상 발생빈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함.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실제로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는 강화되고 폭염 발생이 증가하는 반면 겨울철 한파는 감소하고 대설피해는 증가했으며, 피해액 4조원 이상의 태풍은 모두 최근 5년간에 집중되는 등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보험시장도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해외 일부 재보험회사들 위주로 위험성을 측정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추세였음.
- 그러나 영국의 금융감독 당국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금융산업 전반에 파급되는 일반적인 리스크로 인식하고 경고하였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우리나라의 각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도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증가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상품개발단계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하거나 적절한 재보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자료 : FSA, "Financial Risk Outlook 2007", 2007. 01

기상청, "2007년 기후전망과 대책", 2007. 02

영국기상청, www.metoffice.gov.uk

(김세중 연구원)

<유럽, 국가별 보험모집채널 비중 차이 확대>

유럽 내
보험모집채널
은 국가별로
상이함

- 유럽 전체의 보험모집채널 종사자는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험모집채널에 있어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
 - CEA(European Insurance and Reinsurance Federation)는 2005년 EU의 25개국에서 기업과 개인에게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210만 명이라고 기록함.
 - 이 중 104만 명은 보험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회사의 계약을 판매하고 커미션을 받는 일반대리점과 보험계약자편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중개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직업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나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한 그들의 영향력이나 위치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럽 보험모집채널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공통적으로
생명보험상품
에 대한
은행의 중요성
증가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생명보험상품 판매채널에 대한 은행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음.
 - 대륙의 많은 나라들(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스웨덴 등)에서 은행은 가장 중요한 판매채널임. CEA에 따르면 은행은 이들 국가에서 45%(스웨덴과 벨기에)와 83%(포르투갈) 사이의 점유율을 보임.
 - 금융기관대리점은 프랑스 시장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자국의 일반 대리점 점유율이 1/3로 줄었고 고용자 네트워크는 1/4로 감소함.
 - 컨설팅 회사 Solving International의 부사장 Cyrille Chartie-Kastler는 “생명보험은 저축상품으로 사용되며 그것을 팔기위해 은행들은 그들의 상업적 네트워크와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이용한다.”고 설명함.

**독일은
예외적으로
은행의
비중이 작음**

- 독일은 예외적으로 은행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계약의 대부분을 대리점과 중개사가 담당함.
- 독일의 은행은 겨우 20%의 계약만을 판매하며 이것은 독일의 은행들이 주로 지역적 테두리 안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거대한 전국적 은행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임.
- 결국 독일은 일반대리점이 시장의 34%를 점유하며, 36%는 중개사들과 비전속 대리점이 담당함. 비전속대리점은 일반적인 대리점이 하나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것과 달리 여러 브랜드들을 취급할 수 있음.

**영국은
손해보험에
대한
직접판매의
비중이 큼**

- 영국은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손해보험 판매채널에서 직접판매의 비중이 큼.
- 손해보험 전체의 21%,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절반가량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체결되며,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것은 10년 전에 설립된 Direct Line임. 그들은 전통적 채널에 비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성공을 이룸.
- 그러나 이러한 모델이 어느 곳에서나 재생산될 수는 없음.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각출보험회사(Contributory Insurance Company)에 의해 30년 넘게 사용되어 왔으며 1960년대 이후 각출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계약의 1/3을 차지할 정도까지 성장함.
- 한편 오랫동안 '사고'를 다루는 것을 금기시 했던 프랑스의 은행들은 영국(15%), 네덜란드, 포르투갈(10%이상)보다는 작지만 일반대리점과 브로커들의 시장을 빼앗아 자동차 보험 계약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대리점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서 여전히 강력하고 중개사는 영국과 슬로바키아에서 점유율이 높으나, 전통적인 고용자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음.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자
네트워크는
영향력 감소**

- 이탈리아의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보험의 92%는 아직도 일반대리점에 의해 영위되고 있으며 벨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개사가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더 일반적으로 대리점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폴란드에서 전체시장의 약 50%를 점유하면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중개사는 영국과 슬로바키아에서 각각 51%, 57%의 점유를 보임.
- 전통적인 고용자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곳에서 설 땅을 잃고 있으며 그들은 단지 오스트리아(44%)와 네덜란드(35%) 그리고 상해(accident)보험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스위스에서만 성과를 나타냄.

**은행
중요도의
증가는
우리나라도
유사함**

- 유럽은 보험판매채널에 있어 국가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이며 국가 간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대리점의 점유율 증가 현상은 우리나라와도 유사하며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목격됨.
- 전체적으로 유럽의 경우, 나라에 따라 전통적 판매 채널이 주류를 이루는 곳도 있으나 생명보험 시장에서의 금융기관대리점 점유율 증가와 영국에서의 자동차보험 온라인 판매비중 확대 등은 특징적임.
- 금융기관대리점의 점유율 증가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며, 영국, 독일 등의 금융기관대리점의 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할 것임.

자료 : EFMA, "Common distribution a long way off", 2007.1.

(김세중 연구원)

3. 일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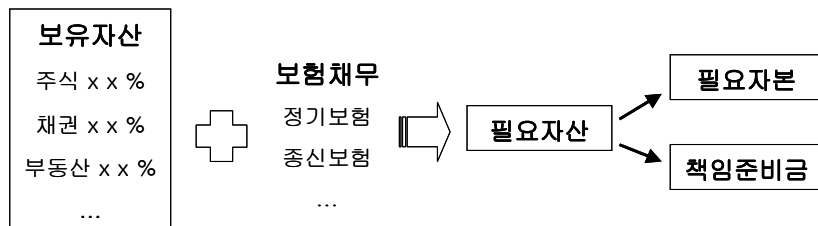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 기준에 관한 항목 재검토>

① 지급여력 확보에 관한 이론적 골조

일본의
책임준비금
기준에 확정
내용

- ☐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와 계약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채무를 측정할 수 있으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요구) 자산액은 결정됨.
- o 책임준비금에 부담 가능한 적정수준의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의 액수가 정해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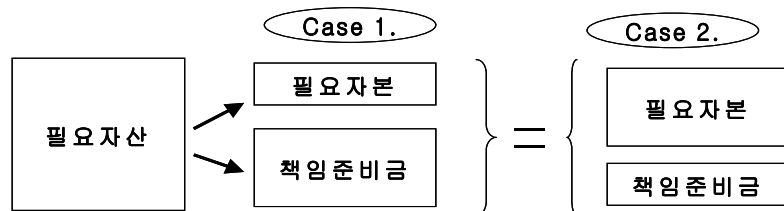
<그림 1> 책임준비금 확정 단계



필요자본의
증감으로
필요자산은
변하지 않음

- ☐ 즉, 책임준비금에 전가된 리스크 대소 차이로 인한 필요자본이 증감되는 것만으로는 필요자산이 변하지 않음.

<그림 2> 필요자본 증감에 따른 필요자산 변화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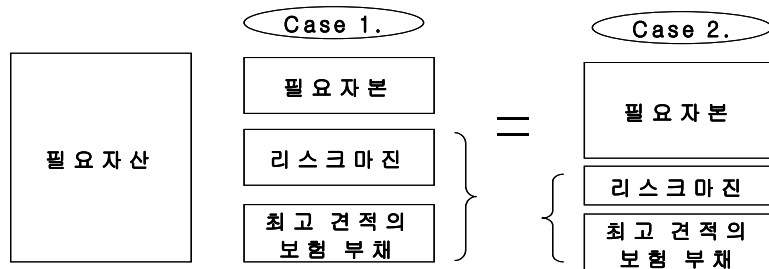


- * case 1 : 책임준비금에 리스크를 부담하는 리스크가 큰 경우
- * case 2 : 책임준비금에 리스크를 부담하는 리스크가 작은 경우

책임준비금은
보험부채와
리스크마진에
의해 측정됨

- 책임준비금은 최고견적에 따른 보험부채와 리스크마진이라는 2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책임준비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임.
- 여기에 추가되어지는 리스크마진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바뀌며, 리스크마진은 책임준비금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시킬까에 따라 달라짐.

<그림 3> 지급여력 검토



- * case 1 : 책임준비금을 부담시키는 리스크가 큰 경우
- * case 2 : 책임준비금을 부담시키는 리스크가 작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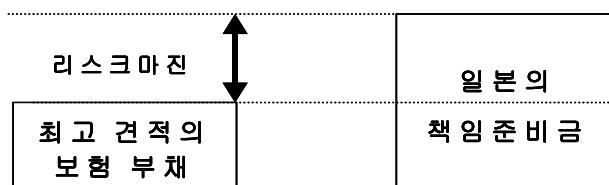
- 최고견적에 따른 보험 부채는 그 시점에서 최선으로 여겨지는 전체에 대한 부채평가 값이며, 통상적으로 해약률도 전망해 평가하고 있음.

② 일본의 법정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은
개념상
최고견적의
보험부채와
리스크마진으로
구분

- 일본의 현행 법정 책임준비금은 명시적으로는 최고견적 부분과 리스크마진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2개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
- 즉, 최고견적의 보험 부채와 책임준비금의 차이가 리스크마진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행법령상 표준기초율을 사용해 순보험료식에서 계산된 책임준비금을 원칙으로 적립하는 것이라 규정되어 있으나, 적립방식 및 기초율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마진이 리스크 마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4> 일본의 법정 책임준비금



상품에 따라
리스크마진의
크기가 달라짐

- ☐ 상품에 따라 리스크마진이 크고 작은 경우는 있으나, 대체로 마진이 큰 상품이 리스크 대응력이 높음.

- o 예정이율이 시중금리와 비교해 극단적으로 비싼 저축성 상품의 경우에는 최고건적의 부채가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 제3분야 보험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계산방식은 위에 전술한 바와 동일함.

- o 단, 장기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기존 기초율의 마진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 과거 발생률 데이터 축적 및 의료 기술의 진보 및 고령화 진행 여부에 의해 전통형 사망보장 상품과 비교하기는 곤란함.

향후 보험료
변경 및 관련
내용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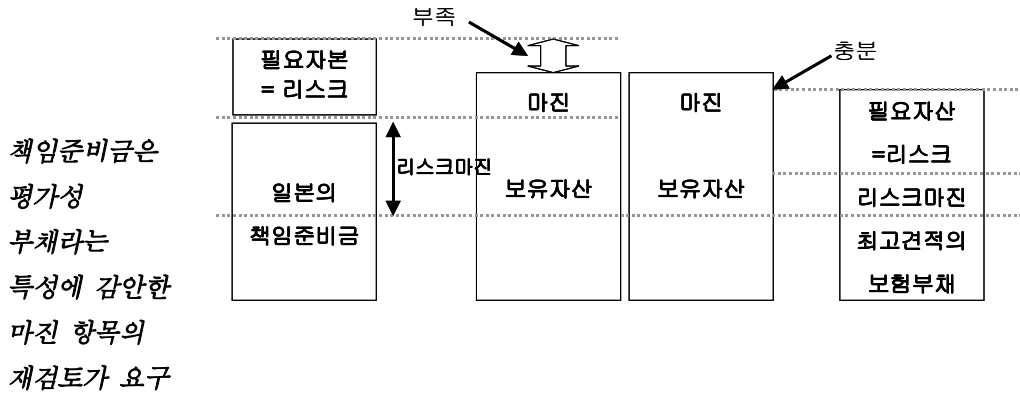
- ☐ 이로 인해 보험료 변경 및 관련 내용의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며, 현금흐름(cash-flow)방식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위험준비금의 증가 등의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리스크마진을 고려한 마진 항목의 검토

- ☐ 이번 SM(Solvency Margin)기준 재검토에 있어서 마진 부분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 중에 포함된 리스크마진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o 즉, 현행의 책임준비금 및 SM(Solvency Margin)기준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책임준비금 중 포함된 리스크마진의 일부를 지급여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그림 5> 리스크마진을 고려한 마진 항목의 검토



- 현행 기준의 마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해약 환급금 및 초과 부분, 미래 수익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 중 리스크마진 일부가 제외된 조정 항목으로 봄.
- 파산 후 재설립 기업은 전기 질멜식(Zillmer)을 채택하고 있어 통상적인 해약환급금이 10년 질멜식(Zillmer)에 가까운 수준인 것을 고려해보면, 보험채무의 이행 수준은 대체적으로 최저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책임준비금은 은행의 예금과는 달리 평가성 부채이므로 리스크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마진 항목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 : アクサ生命保険, ソルベンシー・マージン比率の算出基準等に関する検討チーム
 “責任準備金と内包されるリスク・マージンについて”, 2007.1.29.
 일본금융청, www.fsa.go.jp/singi/solvency/siryou

(박정희 연구원)

<손보사, 의료보험의 판매 자격제도 실시>

① 민영의료보험 판매자격제도 도입 배경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의료보험
판매자격제도
도입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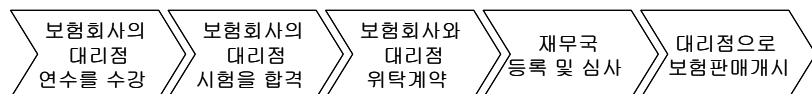
- ☐ 일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시험에 합격한 대리점에만 의료보험 판매를 인정하는 판매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o 더불어 2008년 4월부터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모집인의 자격에도 갱신제도를 도입할 방침
- ☐ 이는 지금까지 의료보험의 상품성이나 모집 방법 등을 묻는 시험제도가 없었으며, 대리점의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서 비롯됨.
- o 현재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과 후지 화재해상보험이 손해보험 상품과는 성질이 다른 의료보험으로 제한된 판매자격제도를 개시, 타사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검토 중임.

② 기존 일본대리점의 등록 절차

대리점 등록시
기존 법령에
따라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 ☐ 2000년(헤세이 12년) 5월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맺은 다음, 대리점의 소재지를 관할 재무국에 등록해야 하며, 또한 대리점에 소속해 보험을 판매하는 자도 재무국에 신고해야함.
- ☐ 특정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보험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 및 각 보험회사의 정한 대리점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위탁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그림 1> 대리점이 되기 위한 수속 절차



**보험판매에
관한**

**기본법령은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준함**

- ☐ 실제 대리점으로서 보험 판매를 실시하려면 보험판매에 관한 법령*이나 보험 상품에 관한 지식 등을 습득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연수 및 시험을 봐야 함.

* 보험 판매에 관한 법령에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보험업법」을 시작해 「소비자계약법」이나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각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보험의 모집인 시험과 대리점 전문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③ 손해보험업계의 인가제도 마련 및 추진일정

- ☐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금의 미지급이나 과도한 보험료 요구로 법령 준수의 의식을 높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 부족을 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명

**향후 보험
모집관련
자격은 보다
강화될 것임**

- o 현재 한 번 부과된 자격으로 무기한 유효하던 것이 일정기간마다 자격을 재갱신하는 것으로 변경됨.

- ☐ 갱신기간은 3~5년으로 조정 중이며, 3년으로 정해질 경우 지금의 모집인들은 전원이, 해세이 11년 3월까지 자격을 재취득하여야 할 것임.

- ☐ 자격시험도 재검토 단계로 계약자가 요구하는 보상에 알맞은 상품의 지식이나 법령 준수에 관한 내용을 확충, 기존의 70점 이상의 합격선이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 합격점 인상에 관한 검토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갱신하지 않는 모집인에 대해선 손해보험 상품 판매를 불가능하게 만들 방침이라 대리점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세부사항은 조정될 것으로 알려짐.

④ 보험판매자격제도에 따른 대리점의 예상 변화

제도 변화에
따라 대리점
존재여부 등
변화가 예상

- 이런 제도 변화에 따라 노령 대리점이나 겸업 대리점의 존재가 위태해질 것임.
- 파레토의 법칙(Pareto Principle)인 2:8의 원칙에 따라 2할의 양질 대리점과 8할의 악질대리점(6할의 보통대리점 + 2할의 악질대리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도태되는 2할의 악질회사와 같은 경우,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것임.

*자료 : 分配信産経新聞, “医療保険, 代理店に販賣資格損保2社、不拂い防止策として”, 2007.1.17.
損害保険業界ノススメ, “日損害保険代理店の統廃合”, 2007.2.9.

(박정희 연구원)

4. 기타 국가 동향

〈싱가포르 보험회사의 자산관리 아웃소싱 사례〉

싱가포르
보험회사들은
거래위험,
시장위험
관리를 위해
사무수탁업무
를 아웃소싱

- 싱가포르 보험회사들은 보험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무수탁업무와 같은 부차적인 업무영역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고 핵심 사업 부문에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추세에 있음.
- 정부의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정책이 리스크 관리 및 경쟁 강화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싱가포르 보험회사들은 약 7년 전부터 자산관리부문을 아웃소싱하기 시작함.
- 자산관리부문의 아웃소싱을 추진하기 이전에 싱가포르 보험회사들은 중앙예탁원(the Central Depository of Singapore)에 주식과 채권에 대한 직접계정을 보유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내재된 거래위험 및 시장위험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던 사무수탁업무를 제3의 수탁기관에 아웃소싱하기 시작함.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절감,
자본지출
최적화,
운영위험전가
등의 이점
기대

- 기업이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비용절감, 기술 발전에 따른 자본지출의 최적화, 운영위험 전가 등이 있음.
- 아웃소싱을 통하여 고정비용을 변동비용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이러한 비용절감 효과는 시장 침체기에 특히 효과가 큼.
-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자본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신기술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아웃소싱을 활용함으로써 자본지출을 최적화할 수 있음.
- 아웃소싱을 통해 사무수탁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표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운영위험을 전가할 수 있음.

자산의
보호예탁,
거래결제와
같은
기본업무뿐만
아니라
증권대출업무
도 아웃소싱

아웃소싱
파트너는
보험업무지식,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자산관리 업무에 대해 아웃소싱을 체결함.
 - 자산의 보호예탁 및 거래 결제
 - 투자연계보험상품(investment-linked product)의 가격산출
 - 법적 규제 사항과 펀드 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운용자의 투자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 어떤 보험회사들은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회계처리, 증권 대출, 위험에 기초한 자본량의 보고, 수탁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데이터 파일 전송 등의 추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웃소싱에 따른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음.
 -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자사가 직접 자산관리업무 부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관리에 유리할 수 있음.
 - 아웃소싱에 따라 데이터 전송 등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월말 결산시 업무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음.
 - 아직은 많은 보험회사가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수탁회사와 증권대출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산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재무팀은 자사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아웃소싱을 통해 수탁회사의 자산 관련 보고 내용 및 수탁회사의 보고 기술(tool)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성공적인 아웃소싱은 어떠한 파트너를 선택하는가에 성패가 좌우되며, 아웃소싱을 통해 수탁회사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은 규제 수준이 높고 전문성도 높은 만큼 수탁회사의 보험산업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수탁회사는 보험회사의 서비스 요구에 빠르게 부응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등 다양한 투자형 상품을 취급하므로 수탁회사가 다양한 투자형 상품의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비용감소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펀드에 대한 수탁보수(fee)를 일괄적으로 감축하기를 바라므로 수탁회사가 유연성 있는 보수체계를 지원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 Goh, Alvin, 「Outsourcing Asset Administration-A Viable Option」, *Asian Insurance Review*, January 2007.

(최영목 부연구위원)

<향후 5년에 걸친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

- 딜로이트(Deloitte)가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지역의 자산규모 US\$1000억 이상 보험회사의 중역들을 대상으로 향후 3~5년에 걸친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망함.
- 설문조사 결과 다섯 가지 주요 이슈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인 것으로 집계됨.
- 다섯 가지 주요 이슈로는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 촉진, 글로벌화를 통한 성장, 보험 상품 및 판매채널의 혁신, 인구통계적 변화에 대응 등이 있음.

① 위험관리

**향후 5년동안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위험관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설문조사 결과 위험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으며, 리스크 중에서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평판위험의 순으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자연재해와 테러가 대응이 필요한 중요 위험인 것으로 응답됨.
- 보험회사의 중역들은 향후 5년 동안 위험관리가 보험회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클 것으로 응답함.
-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계량적으로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8%가 시장위험(market risk)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답변함.
- 다음으로 응답자의 46%가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답변하였고, 응답자의 38%가 고객의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발생하는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이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재보험 등을 통해 위험을 전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자연재해와 테러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함.

- 시장위험은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반면, 보험회사의 기술과 상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운영위험은 계량화하고 관리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 운영위험이 중요해짐에 따라 유럽에서는 Solvency II를 통해 운영위험을 계량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예정임.
- 향후에는 세부적인 고객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마다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서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서는 이러한 데이터와 관련한 운영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용평가기관의 감시는 보다 높은 투명성을 원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전사적인 위험관리가 요구됨.
- 보험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리적 관행과 자본시장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험회사의 등급을 높게 평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주의 부(wealth)를 극대화하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을 가장 높게 평가할 것임.
-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가 핵심업무로 부각됨에 따라 위험담당최고책임자(Chief Risk Officer) 직책을 만들거나 위험관리와 관련된 권한을 CFO에 위임하여 전사적인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위험관리와
연관된
컴플라이언스
비용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침**

② 컴플라이언스

- 보험회사의 중역들은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의 촉진
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답변함.
- 약 70%의 답변자들이 컴플라이언스에 따른 비용이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함.

- 답변자 중 56%는 법적 규제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심이 많았음.
- 또한 답변자 중 31%는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언급함.
- 정책 당국에서는 컴플라이언스를 실행하는 보험회사에 편익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해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전사적으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보험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브로커의 보수(fee) 체계 및 보험회사의 소유이해(ownership interest) 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공시할 필요가 있음.

③ 글로벌화를 통한 성장

선진
보험회사의
글로벌화도
수익성을 좌우

- 다른 산업의 중역들에 비해 보험회사의 중역들은 글로벌화를 다소 낮은 순위로 인식하였지만 향후에는 글로벌화를 통한 성장과 이익 확충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답변함.
- 응답자들 중 42%가 향후 3년 이내에 글로벌화가 이익 확충의 핵심적인 동인(driver)이 될 것으로 답변함.
- 보험회사의 글로벌화를 중요한 이슈라고 답변한 중역들 중 40%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가까운 선진국의 보험회사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진국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이 자국에서 신상품을 출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업의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함.

- 보험회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해외시장에서 사업의 잠재성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험관리도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④ 보험 상품 및 판매채널의 혁신

고객지향적인
상품 및
판매채널의
혁신이
수익성을
좌우

- 보험회사 중역들은 향후 3~5년 동안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판매채널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함.
 - 답변자들 중 40%가 향후에는 혁신(innovation)이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60%이상이 판매채널의 혁신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고, 54%는 상품 혁신이 수익성 창출의 핵심이라고 답변함.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다양한 업무에서 혁신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인식함.
- 보험회사의 상품과 판매채널을 고객 지향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로열티를 높이는 것이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혁신의 방향은 고객 지향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험회사는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고객 로열티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러한 일련의 혁신 과정을 통해 상품과 판매채널에서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⑤ 인구통계적 변화에 대응

-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들의 금융 수요에 맞게 보험회사는 재빠르게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인구통계적
변화에
대응한
상품개발도
수익성을
좌우

-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이들의 자산이 보험회사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회사는 금융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이들 세대의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는 투자형 금융상품의 취급기관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타금융업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능력의 배양, 투자형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자산관리회사로 도약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전통적인 생명보험 및 연금에 건강이나 간병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이 결합된 통합된 형태의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상품의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새로운 보험수요를 창출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인력확충 및 관리 측면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 Deloitte Financial Services, "Top Five Issues on the Insurance Watchlist", *Asian Insurance Review*, January 2007.

(최영목 부연구위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5		CY2006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4.5	5.3	6.1	5.3	4.8	4.0
경상수지		2,198.2	5,167.1	-1,118.4	692.0	374.9	6,144.1
수 출		71,098	76,811	73,893	81,473	82,729	87,889
수 입		66,228	70,688	72,052	76,623	80,282	79,928
실업률		3.8	3.6	3.5	3.5	3.5	3.3
금리	국고채(3년)	4.32	4.99	4.94	4.87	4.78	4.72
	회사채(3년)	4.73	5.40	5.38	5.15	5.11	5.05
소비자물가지수		100.4	100.4	101.4	102.1	102.9	102.6
환율	원/달러	1,038.0	1,013.0	975.9	960.3	945.2	929.6
	엔/달러	113.3	117.8	117.3	115.1	117.8	118.9
종합주가지수		1,221.01	1,379.37	1,359.60	1,295.15	1,371.41	1,434.46
외환보유고		206,731	210,391	217,344	224,357	228,224	238,956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5				CY2006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55,643	71,225	77,359	92,935	81,083	93,699	89,600	115,113
생명보험	42,277	53,602	60,022	75,781	66,460	74,238	69,914	94,257
손해보험	13,366	17,623	17,337	17,154	14,623	19,461	19,686	20,856
은 행	-20,297	176,673	96,532	49,098	-41,969	225,384	128,483	181,165
일반계정	-30,494	196,056	84,452	41,787	-85,002	183,429	82,785	165,339
신탁계정	10,197	-19,383	12,280	7,311	43,033	41,955	45,698	15,826
증 권	16,898	11,948	17,618	19,175	-8,291	18,650	48,065	13,445
투 신	52,889	46,962	-37,592	74,571	184,828	-5,011	25,649	97,260
종 금	19,416	2,048	-10,616	40,443	5,651	31,812	53,010	10,350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보험	보험료	29,441	30,125	31,722	119,887	30,188	31,314	32,398
	성장률	-5.6	-7.4	8.0	-1.2	5.6	6.4	7.5
	구성비	20.8	17.2	19.7	19.5	19.2	20.1	18.0
사망보험	보험료	67,289	68,182	69,342	271,215	69,685	70,840	72,127
	성장률	6.5	5.7	5.4	6.2	4.9	5.3	5.8
	구성비	47.5	38.8	43.2	44.1	44.3	45.5	40.0
생사혼합보험	보험료	18,700	18,070	17,514	72,596	16,689	16,636	16,974
	성장률	-7.7	-10.9	-8.2	-8.9	-8.9	-11.0	-6.1
	구성비	13.2	10.3	10.9	11.8	10.6	10.7	9.4
변액보험	보험료	16,215	24,761	30,752	83,822	27,479	27,675	29,406
	성장률	392.4	295.8	168.4	252.4	127.2	70.7	18.8
	구성비	11.5	14.1	19.1	13.6	17.5	17.8	16.3
개인보험계	보험료	131,646	141,137	149,330	547,521	144,041	146,465	150,906
	성장률	11.6	14.2	18.8	14.0	14.9	11.3	6.9
	구성비	93.0	80.4	93.0	89.1	91.7	94.1	83.7
단체보험계	보험료	9,891	34,486	11,298	67,201	13,095	9,186	29,309
	성장률	12.8	7.2	38.2	17.1	13.6	-7.1	-15.0
	구성비	7.0	19.6	7.0	10.9	8.3	5.9	16.3
전체	보험료	141,537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55,651	180,215
	성장률	11.7	12.8	20.0	14.4	14.8	10.0	2.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18,534	21,078	22,329	79,830	18,366	20,876	20,244
	증가율	18.2	15.5	2.5	12.2	2.7	12.6	-4.0
	지급률	63.0	70.0	70.4	66.6	60.8	66.7	62.5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24,360	24,793	27,316	99,169	25,910	29,005	27,675
	증가율	12.5	4.1	9.9	9.4	14.1	19.1	11.6
	지급률	36.2	36.4	39.4	36.6	37.2	40.9	38.4
생존사합보험	지급보험금	25,818	35,996	23,330	109,596	18,080	18,284	18,737
	증가율	9.4	40.6	-16.0	7.1	-26.1	-29.2	-47.9
	지급률	138.1	199.2	133.2	151.0	108.3	109.9	110.4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847	1,509	2,463	5,417	3,317	4,077	6,149
	증가율	109.4	137.5	67.9	86.4	454.7	381.5	307.5
	지급률	5.2	6.1	8.0	6.5	12.1	14.7	20.9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69,558	83,377	75,439	294,012	65,672	72,242	72,805
	증가율	13.4	22.1	-0.6	10.1	0.1	3.9	-12.7
	지급률	52.8	59.1	50.5	53.7	45.6	49.3	48.2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1,957	16,466	18,729	61,803	17,208	13,496	13,154
	증가율	14.0	37.8	19.9	25.7	17.6	12.9	-20.1%
	지급률	120.9	47.7	165.8	92.0	133.5	170.7	44.9%
전체	지급보험금	81,515	99,843	94,168	355,815	82,898	85,737	85,958
	증가율	13.5	24.4	2.9	12.5	3.2	5.2	-13.9%
	지급률	57.6	56.9	58.6	57.9	52.7	55.1	47.7%

주: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보험	사업비	4,331	5,010	5,523	18,639	5,562	6,029	6,448
	증가율	19.5	34.5	-5.6	-4.9	47.3	39.2	28.7
	사업비율	14.7	16.6	17.4	15.5	18.4	19.3	19.9
사망보험	사업비	15,790	16,913	16,437	65,218	15,872	17,138	17,855
	증가율	-2.0	4.3	-19.6	-4.9	-1.3	8.5	5.6
	사업비율	23.5	24.8	23.7	24.0	22.8	24.2	24.8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5,497	5,828	6,124	22,894	5,770	5,398	5,538
	증가율	73.1	35.8	12.5	52.7	6.0	-1.8	-5.0
	사업비율	29.4	32.3	35.0	31.5	34.6	32.4	32.6
개인보험계	사업비	25,618	27,751	28,085	106,750	27,203	28,565	29,842
	증가율	11.8	14.6	-11.5	6.6	7.5	11.5	7.5
	사업비율	19.5	19.7	18.8	19.5	18.9	19.5	19.8
단체보험계	사업비	734	935	845	3,200	765	788	836
	증가율	21.2	32.5	-29.8	3.7	11.5	7.5	-10.6
	사업비율	7.4	2.7	7.5	4.8	5.9	8.6	2.9
전체	사업비	26,351	28,686	28,929	109,950	27,968	29,354	30,678
	증가율	12.1	15.1	-12.2	6.5	7.6	11.4	6.9
	사업비율	18.6	16.3	18.0	17.9	17.8	18.9	17.0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751	913	785	3,243	756	716	902
	성장률	13.2	10.7	14.6	10.4	-4.8	-4.7	-1.2
	구성비	1.2	1.3	1.2	1.3	1.1	1.0	1.2
해 상	보험료	1,412	1,280	1,186	5,277	2,101	1,604	1,304
	성장률	0.2	1.3	4.4	4.1	50.2	13.6	1.9
	구성비	2.3	1.8	1.8	2.1	3.0	2.2	1.7
자동차	보험료	22,062	22,342	22,100	87,890	22,598	24,344	24,444
	성장률	2.5	1.6	6.1	3.1	5.7	10.3	9.4
	구성비	35.5	32.2	34.3	34.2	32.6	33.7	31.4
보 증	보험료	2,391	2,791	2,630	10,067	2,972	2,665	3,073
	성장률	9.7	25.8	15.9	11.6	31.8	11.5	10.1
	구성비	3.9	4.0	4.1	3.9	4.3	3.7	3.9
특 종	보험료	5,744	6,263	5,152	22,904	6,143	6,159	6,813
	성장률	12.9	10.1	14.3	12.4	6.9	7.2	8.8
	구성비	9.3	9.0	8.0	8.9	8.9	8.5	8.7
해 외 원보험	보험료	143	164	173	609	156	205	278
	성장률	-33.0	-13.0	-7.1	-23.5	20.9	43.1	69.9
	구성비	0.2	0.2	0.3	0.2	0.2	0.3	0.4
장 기	보험료	27,435	28,736	29,932	112,562	31,564	33,352	34,814
	성장률	16.5	16.3	18.3	16.8	19.3	21.6	21.2
	구성비	44.2	41.4	46.4	43.8	45.6	46.1	44.7
개 인 연 금	보험료	1,715	1,788	1,789	6,976	1,836	1,884	2,119
	성장률	2.1	5.5	6.5	2.6	9.0	9.8	18.5
	구성비	2.8	2.6	2.8	2.7	2.7	2.6	2.7
퇴 직 보 험	보험료	410	5,162	752	7,707	1,133	1,370	4,216
	성장률	-42.7	41.7	29.8	37.1	-18.1	234.5	-18.3
	구성비	0.7	7.4	1.2	3.0	1.6	1.9	5.4
계	보험료	62,063	69,438	64,498	257,235	69,259	72,299	77,962
	성장률	8.8	11.6	12.8	10.8	13.1	16.5	12.3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2/4	3/4	4/4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2.8	41.2	40.9	48.8	40.7	40.2
	사업비율	52.3	55.2	53.2	46.2	42.7	48.6
	합산비율	95.1	96.4	94.1	95.0	83.4	88.8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0.3	49.8	52.0	51.3	50.3	46.4
	사업비율	29.3	32.2	31.0	27.7	30.0	31.2
	합산비율	79.7	82.0	83.0	79.6	80.2	77.7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3.0	76.8	76.6	77.2	78.9	79.5
	사업비율	31.1	31.4	31.9	31.4	31.6	31.5
	합산비율	104.1	108.3	108.5	108.6	110.5	111.0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10.7	-1.0	2.9	16.2	10.5	21.5
	사업비율	18.4	17.2	21.3	12.5	19.2	17.3
	합산비율	29.1	16.2	24.2	28.8	29.7	38.8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47.0	48.0	51.6	48.5	55.8	56.8
	사업비율	24.9	25.6	25.8	22.1	23.3	24.5
	합산비율	72.0	73.6	77.4	70.5	79.2	81.3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3.3	55.6	52.4	26.1	40.4	36.7
	사업비율	65.6	64.8	72.9	97.7	97.3	98.0
	합산비율	108.9	120.4	125.3	123.8	137.7	134.7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5.6	85.7	86.4	86.7	85.3	84.3
	사업비율	15.9	16.2	16.5	17.4	18.0	18.5
	합산비율	101.5	128.6	103.0	104.1	103.2	102.8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8.7	119.1	125.9	119.9	119.8	118.9
	사업비율	9.6	9.6	10.0	9.5	9.2	9.3
	합산비율	128.4	128.6	135.9	129.4	129.0	128.2
전 체	경과손해율	75.9	77.0	77.9	78.6	78.7	78.8
	사업비율	22.6	22.9	23.2	22.6	23.2	23.5
	합산비율	98.5	99.8	101.1	101.2	101.9	102.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 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연구조사자료

-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대응방안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정책연구자료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 한기정 2005.2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6.11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 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태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회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20호 선진 보험회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CEO Report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씨티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보험동향』

2007년 봄호(통권 41호)

2007년 4월 2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인쇄소
전 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240)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